

#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10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거래고객  
(주)동남리싸이클링 전기도 대표

##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아산성장지점 거래고객  
(주)인투스 오재환 대표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 IBK UP TOGETHER

IBK기업은행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 나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의  
**CROW UP**

작은 어려움도  
후로서는 청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니까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 IBK 희망나래 장학금 ]

취업을 위한  
[ 멘토링에서 ]

완벽한 자립을 위한  
[ 금융교육까지 ]

<p>04</p> 	<p>04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젊은이들의 친절에 감사' 외</p>
<p>72</p> 	<p>12 이달의 편지 '자영업 1년' 외</p> <p>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동남리싸이클링 전기도 대표</p>
<p>76</p> 	<p>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인투시 오재환 대표</p> <p>80 코너 속 편지 '이루어진 꿈' 외</p> <p>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시장 구경 사람 구경</p> <p>113 김일종의 스튜디오에서 홍시</p>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 **발행인** (취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종 **프로듀서** 용승우,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젊은이들의 친절에 감사

권현옥 | 경북 영주시 봉현면

며칠 전 파주에 사는 큰아들에게서 집에 좀 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농촌이 많이 안 바뀔 때 저희네 집에 와서 좀 쉬라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애들 본 지도 오래됐고 집에 농사일도 조금 한가해진 터라 청량리행 무궁화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시간도 이르고 해서 하계역 부근 모 병원에서 어지럼증 약을 타가지고 갈 생각으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근데 시골 사는 아줌마가 그것도 자주 타보지 않은 지하철이라 길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학생! 모 병원 가려는데 내가 길을 몰라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 예. 여기서 덕소행 경의선 타고 상봉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7호선 타시면 서너 정거장 뒤에 하계역이에요. 거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하고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조심해 다녀오세요~” 하며 인사까지 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가는지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라 ‘우리 애들도 이런 상황에 저렇게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병원에 들렀다가 애들 집으로 가서 식사하고 다음 날 새벽 제주도도로 휴가 떠나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고 다시 늦잠에 푹 빠졌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시골집에 있으면 뭐라도 일을 할까봐 할 일 없는

저희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며칠 꼭 쉬라고 일부러 집이 비었을 때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렇게 첫날과 이튿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세상 걱정 없이 쉬다가 사흘 만에 냉장고 정리하고 밀반찬 만들고 마트에 가서 우유랑 음료 등 냉장고 좀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앞에 섰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지라 기계 앞에 적힌 글을 읽고 따라 했는데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 봉투를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돌려서도 대보고 그래도 처리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깐 그 아가씨는 제게 다가오더니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손수 받아 들고 다시 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봉투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서 인식기에 대니까 비로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아가씨는 스티커를 다시 봉투에 붙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넣어주고는 고맙다는 제 말을 뒤로한 채 너무도 멋있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가씨는 정말 연예인 못지않게 잘 생겼고 키도 늘씬하게 커서 모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남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맨손으로 처리해 주다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요.

실 새 없이 바쁜 맞벌이 아들 내외와 유소년 야구부에서 구슬땀 흘리며 운동하는 우리 손자가 잠깐의 휴가지만 피로가 풀려 돌아오길 바라며 애들 오기 하루 전에 저는 아들 집을 나서서 다시 시골행 완행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번 서울 나들이는 왠지 기분 좋은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여행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청량리 역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아줌마에게 하계역 모 병원을 알려준 젊은 학생과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예쁜 외출복 차림으로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직접 넣어주고 간 젊은 멋쟁이 아가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도회지에 사는 우리 아들들에게도 엄마가 이런 친절할 대우를 받았노라고 들려주어야 할까 봐요. 우리 아들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친절을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 정말 오지랖인가요

박영이 | 대구광역시 북구

흔히 ‘배려’와 ‘오지랖’을 구별할 때 배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오지랖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여기저기 참견하고 나서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오지랖일까요?

저는 배려라고 하는 행동인데 사춘기인 우리 아들은 엄마가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픈 감정이 듭니다. 아들이 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행동이 정말 오지랖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상황들이라 남을 돕는다고 한 행동들이 과하게 보이거나 봐요.

아들이 어릴 땐 이런 행동들을 멋지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분명 같은 행동인데도 부끄러워하니 제 행동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들의 반응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 사연을 남깁니다.

평소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져요. 언제 한 번은 퇴근하던 중 주차된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기에 문자를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차주님이시죠? 지금 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직접 전화를 했을 텐데 굳이 전화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문자로 대신하지요. 나의 문자 한 통이면 그다음 날 차가 방전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방전으로 인해 출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괜히 빨리 서두르다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차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도 아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엄마, 문자 보내지 말고 그냥 가. 신경 쓰지 말고…”

아들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알겠어 그냥 가자”하고 집에 가지만 잠시 뒤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고 바로 내려와 문자를 넣어 주곤 한답니다.

며칠 전엔 우리 집 현관 앞에 웬 아이스박스 택배 상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706호라고 매직으로 적혀 있기에 순간 택배기사님이 실수로 호수를 잘못 배달하셨나 싶었죠. 저희 라인은 703호와 705호이고 706호는 저희 동 바로 옆 라인에 있거든요.

예전의 제 성격 같았으면 제가 직접 706호 앞에 가져다 놓았겠지만 요즘은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 제가 직접 배송해 주지는 않아요. 대신 수령인에게 전화하거나 택배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편인데 이날은 운송장에 수령인 전화번호가 별표로만 표시되어 있어 난감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둘까? 아이스박스면 음식물 아닐까? 날씨가 더워서 금방 상하면 어쩌지.’

저는 고민하다 인터폰을 들고 706호로 연락을 했죠.

“여보세요? 706호 김\*\* 씨 맞으실까요?”

“네 맞는데요.”

“저는 705호인데요. 지금 우리 집 앞에 706호 물건이 있어서 연락 드렸어요. 기사님께서 오배송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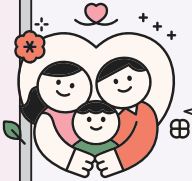
그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은 “엄마가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해? 택배기사님하고 알아서 찾겠지” 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문을 닫고는 들어가 버리기까지….

속상한 마음에 아들과 나눈 대화를 남편에게도 털어놓았더니 남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면 택배기사님은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런 상황을 기사님이 아셔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제가 한 행동들이 배려가 아닌 오지랖인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거 아닌가요? 양희은 님, 김일중 님 누구 한 분이라도 제 행동이 배려가 맞다고 얘기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나의 별명



[7651] 원래는 매탄동 불주먹이었습니다. 결혼 후 설거지를 전담해서 매탄동 빨간 장갑이 되었네요.

[0795]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혼수상태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얼굴을 묻고 졸고 나면 얼굴이 빨개져서요.



[이수현] 지리산 자락에서 고구마 농사짓고 있습니다. 별명은 물고메입니다. 물고구마를 갱상도 사투리로 물고메라고 하지요. 전 54세 남성입니다. 갱년기가 와서 힘들 때 물고메랑 사이다 마시며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사이가 원만합니다.



[양판순] 전 부산 다니엘 헤니입니다. 손주 조카들이 붙여줬어요.

[7845] 애청자 조수봉입니다. 저는 가야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별명은 심수봉, 쓰봉, 반쓰봉 등 등 봉으로 끝나거나 시작되는 거였어요. 현재 불리고 싶은 건 가야금을 만드니 악기장입니다. 멈추지 않은 열정으로 국악기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 12 자영업 1년
- 15 보통의 부부
- 18 덕천댁
- 20 걸어서 부산까지
- 25 굿즈와의 전쟁
- 29 육 형제 홍이네
- 32 스쿠버다이빙 도전
- 37 실장님이 절 살렸어요!
- 40 첫 번째 가사 실습
- 44 신안으로의 초대
- 47 타인의 배려
- 51 삼촌, 괜찮아요?
- 56 수저 세트
- 60 딱 20년 만입니다



Letter 01

# 자영업 1년

조지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누** 스만 보면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 폐업이 갈수록 심각해진  
**티** 다... 온통 암흑 같은 말들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작년 8월 저는 겁도 없이 경험 한번 없는 사람이 건강식품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제게 어울리는 말이었  
던 것 같습니다. 잘될 거라는 혼자만의 믿음과 확신으로 온통 부푼  
꿈으로 남들 다 휴가 가는 8월에 오픈했습니다. 경험이 있었더라면  
사람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8월에 오픈하지 않았겠지요.

가게를 열어 놓고 온종일 가게 문만 쳐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에공~ 저 사람들이 다들 우리 가게 손님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퇴근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내가 무식했구나, 시장 조사란 것도 해보지  
않고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저질러 버린 잘못된 사업이었구나 후회



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만 오픈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 물건을 사 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경험도 생각도 부족한 제게 가혹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조급해진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조급함보다 천천히 내 가게에 오시는 분들께 편안함을 주는 곳이 되어보자~'고요.

건강식품 매장이다 보니 고객층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찌다 물건 사러 들어오면 한참을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 일이 없는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사장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복 받을 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로움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야기 속에 묻어 있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건 팔기보다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가게의 문턱은 낮아졌고 어르신들이 지나는 길에 쉬어 가는 곳이 되기도 하고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하는 곳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하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편하게 계실 수 있게 커피, 전통차, 다과를 준비해 놓고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은 가게 오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 감사함이 더 많았습니다. 경험도 생각도 부족한 제가 저지른 사업이 잘 버텨 주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호응해 주고 공감해 주는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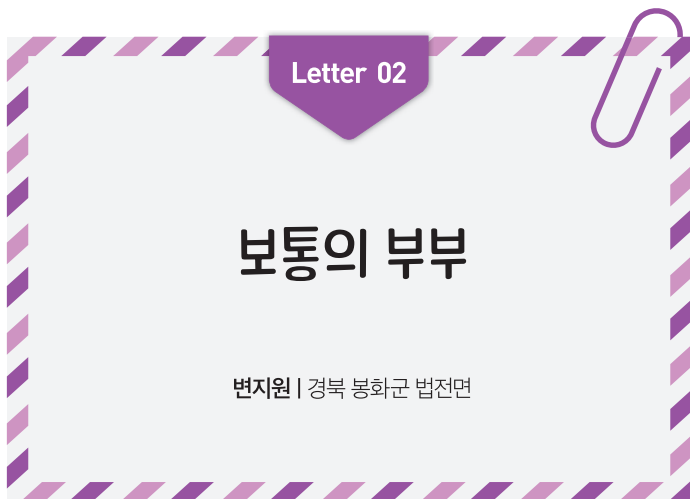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틸 수 있어 감사하고 아침마다 곱게 화장하고 나올 수 있는 내 공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주년 되는 날에는 찰시루떡과 백설기를 해서 가게 단골손님과 가게를 찾아 주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다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1년이란 시간이 제 마음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 2주년, 3주년, 5주년 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첫 자영업 도전, 이 정도면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작** 년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던 그 무더운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법 저희 부부도 익숙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아이 어릴 때 부부끼리 많이 싸운다고. 께가 쏟아지는 저희 부부도 피해 갈 수 없었고 제게 일 년을 시달린 불쌍한 우리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99년생 와이프와 사는 97년생 우리 남편. 큰 키에 시원하게 생긴 눈, 오뎅한 코에 하트 입술~ 이것들에 반해서 저는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여성시대 애청자이셔서 조금 말하기 부끄러운데, 저 연애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진짜 진국이다 싶었어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한 결혼인데 딱 두 달 차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저녁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나 이직해야겠어.”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그러저럭 다닐만했던 중소기업 회사를 관둔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우리 아이랑 먹고살기엔 너무 월급이 적어.”

그러곤 준비를 시작하더니 얼마 안 돼 2조 2교대로 일하는 중견기업에 이직했습니다. 그사이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한 달 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이와 가정을 위해 남편은 담배도 끊고 쉬는 날 병원으로 간식을 가져다줬습니다. 밤낮 바뀌 열두 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병원까지 오자니 몹시 피곤했을 텐데 임신부가 뼈밖에 없ادم 제 걱정뿐이더라고요.

애뜻한 임신 기간을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육아도 해야 하지만 쏟아지는 집안일도 감당해야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 제 남편 자랑만 써왔는데 사실 남편이 집안일에는 정말 일머리가 없어요. 양말을 뒤집어 놓거나 수건 널브러 놓고 입은 옷들 구석에 박아두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한때는 일부러 저러나 싶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확실합니다.

저는 완벽주의가 조금 있는 탓에 전에는 제발 손대지 말라며 혼자 집안일을 담당했지만 출산 후에는 감당이 안 돼서 함께하게 됐어요. 당연히 남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엉망진창이었고 그때마다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니까 더 청결하게 지내고 싶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잠을 못 자서 예민한 탓에 정말 자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하면 일하라 야기 보랴 아내 비위 맞추랴 애쓰는 남편이 애뜻하고 미안하다가도 막상 어지른 꼴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이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가며 서로 여유가 생기니 조금씩 양보도 하게 됩



니다. 부딪히는 일도 적어지고 제법 커서 예쁜 짓을 하는 공주님 덕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심경의 변화가 저희 부부만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 아기 엄마들이 다 토씨 하나 다른 부분이 없다며 크게 공감 하더라고요.

원래 부부란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뽕 쥐어박고 싶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삼 멋지고 잘생겨 보이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이렇게 맞춰가면서 늙어가는 거겠죠.

“여보~ 앞으로는 내가 가능한 한 잔소리 덜 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 Letter 03

## 덕천덕

정선례 | 전남 강진군 칠량면

어머니 기일이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격식 갖추 만들어 놓고 장롱 위에 둔 액자를 꺼냈다. 몸은 야위었지만 얼굴이 말갱다. 남편은 지금도 제사상에 술을 못 올리게 한다. 대신 맑은 물 한 잔 올리고 추모한다. 베짖이 남편을 만나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떠난 어머니 덕천덕의 “맛있구먼~” 하는 나직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남편이 일전에 무슨 말끝에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어머니께 한 번도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린 적이 없다….”

무뎠고 말수 없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했고 눈가에 그렇그렇 맺힌 이슬을 훔치는지 손이 얼굴에 가 있었다. 무능력한 아버지를 둔 장남의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덕천덕. 어머니는 아들이 길러낸 채소며 딸기를 장마다 팔러 가서

도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어떤 요기도 안 하셨다고 한다. 그 어려운 살림에도 언젠가 제 몸 누울 자리 받떼기는 팔지 않고 버티셨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심정을 안으로 내내 삭혀서인지 덜컥 자리에 누워 시나브로 스러지셨다.

“그니께 느그들… 나 죽거들랑 쓸데없이 태우지 말거라.”

유연인 듯 당부 남기고 물길을 따라 넘어가는 고두골 자락 호젓한 밭 귀퉁이 한자리 차지하고 두 다리 쪽 펴고 누우셨다.

아버지 덕천 양반은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셨다. 보이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었다. 다툼을 싫어하는 덕천댁이었지만 어쩔 도리 없이 아웅다웅 지냈는데 죽어서는 다정할는지 의문이다. 부부가 연을 맺어 평생을 함께 살면서 쓰다듬고 아껴도 부족한데도 남편이 날마다 술에 절어서 입으로 술을 깨며 집안을 불안하게 했으니 천성이 부지런하고 무던하셨던 어머니라도 평생에 그 속이 오죽했을까?

스물한 살에 시집온 덕천댁이 배가 등에 붙은 채 흙을 주무르던 이 밭은 그녀만의 구역이었다. 손에는 언제나 호미가 그녀의 등처럼 구부정하고 닳아져 흙 때 묻은 채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한세월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을 만큼 바지런했다. 장독대와 집 주변, 밭에는 언제 보아도 풀이 성하지를 앓았다. 제초제를 쓰면 안 되는 도라지밭에서 땡벌이 머리를 쫓는데도 물기 없는 맨손에 호미자루 쥐고 잡초를 뽑느라 여념이 없었다. 잠자는 시간 말고는 밭에 엎어져 일만 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거두느라 손톱이 닳아지도록 흙을 매만졌던지라 그녀의 밭은 돌맹이 하나 없이 흙이 늘 몽글었다.

그런 그녀가 식솔들 돌보느라 당신 몸은 돌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갔다. 삭신이 내려앉을 정도로 들일 하느라 해지는 줄 몰랐을 그녀의 생애가 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 Letter 04

## 걸어서 부산까지

이병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지 난 4월 초, 아들이 “이번 여름에는 걸어서 부산까지 가보려고요~” 툭 던질 때만 해도 ‘설마 땀별을 뚫고 부산까지 가려는 건 아닐 테지’ 하고 가볍게 흘려들었다.

“무슨 똥판지같은 소릴 해. 부산이 뭐 동네 PC방인 줄 알아? 그것도 한여름에?”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후 아들은 쉬는 날이면 걷는 훈련을 한다며 새벽 일찍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다. 수원 혹은 오산, 병점까지 갔다 왔단다. 수시로 컴퓨터를 켜놓고 ‘산을 넘을까? 국도를 따라 돌아갈까?’ 하며 고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도 보며 연구하고 지역마다 숙소와 편의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말려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국토순례는 20대에나 하는 거지. 삼십 중반을 넘어가는 네가 무슨

국토순례야? 그리고 봄이나 가을도 아니고 한여름에? 집에 에어컨 밑에 있어서 더운데 여름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뉴스도 못 들었어?”

“봄이나 가을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일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대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순천’이 어디 붙었는지, ‘순창’엔 뭐가 유명한지, ‘청도’가 충청도에 있는지 경상도에 있는지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다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지리 공부도 확실하게 할 겁니다.”

걷기 좋은 운동화, 팔 토시, 목까지 보호하는 모자, 우의, 배낭, 용량 큰 보조배터리, 별레기피제, 간단한 의약품 등 도보여행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더니 마침내 지난 7월 29일 아들은 부산을 향해 새벽 어둠을 가르며 집을 나섰다. 아내는 아들의 배낭 옆구리에 작은 태극기를 꽂아 주었다.

“아이 참, 태극기는 왜 꽂아요. 창피하게!”

“그런 소리 하지마라. 그래도 태극기를 꽂고 가야 어디 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쉽게 얻어 마실 수 있어.”

아들의 계획은 이랬다. 넉넉히 2주 정도를 새벽에 걷기 시작해서 하루 일곱여덟 시간을 걸어 광복절 전에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것. 대전에서는 군대 동기를 대구에서는 대학 동창을 만난다고도 했다.

아들이 집 나선지 4시간 만에 첫 사진이 가족 문자대화방에 올라왔다. 수원 성균관대역이었다. 이렇게 아들의 여정은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공유되고 중계되었다.

십여 년 전 아들은 해군에 입대해 진해에 가서 훈련받았다. 연병장에 아이를 들여보내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얼마나 힘들까 싶어 진해 앞 바다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추슬렀는데 이번에 아들을 보낸

마음도 그랬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달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숙소와 음식점 등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보내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차를 끌고 달려갈 수도 있다. 그래도 육체적 한계와 싸워야 하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이 떠난 이틀째에는 평택역, 사흘째에는 천안역 사진이 올라왔다. 숙소에서 새벽 3시쯤 나와 국도를 따라 마을을 지나 들길을 따라 하루 평균 여덟 시간 정도를 걷는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예약한 숙소에 배낭을 맡기고 짐질방이나 정형외과를 찾아 발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새벽에 길을 나서면 어둠과 싸우고 해가 나면 더위와 싸우고 산길을 걸을 때면 지독하게 따라붙는 날벌레와 싸운단다.

아들은 음악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개인 레슨, 주말에는 소속 단체에서 연주하느라 한가할 틈이 없다. 봄이나 가을엔 연주가 많아 전국을 제 집 드나들 듯 다닌다. 군에 있을 때는 군악대에서 제주도에 몇 번이나 갔고 크고 작은 섬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행을 위해 다닌 적은 없다. 공연이 끝나면 돌아오기 바빠 다닌 곳 지명도 못 외울 때가 많았다.

나흘째 되는 날엔 조치원역, 엿새째엔 대전역에서 늠름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이 전송됐다.

<우리 오빠 대단하네. 벌써 대전이야. 그런데 사진은 어떻게 찍어?>

<지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축하해, 아들! 첫 번째 고비를 넘었구나. 대전까지가 170킬로미터, 대전에서 부산까지 260킬로미터니 가야할 길이 더 멀지만 그래도 대



단하다 우리 아들>

대전에서는 군대 동기를 만났는데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데 새벽에 나가야 해서 꽤 될까 사양했다.

7일째에는 옥천역, 영동역 사진이 연이어 올라왔다. 9일째에는 ‘괘방령’이라는 산을 넘는단다.

<아들, 경북 진입을 축하한다. 앞으로 3시간 정도 더 가면 ‘직지저수지’ 나오고 직지공원도 있는데 거기서 쉬어가렴. 직지가 프랑스 루

브르박물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 있던 곳이야>

다시 올라온 사진에는 퐁퐁 언 생수병 하나가 있다. 편의점 아저씨가 말없이 엄지척하고 놓고 가셨단다. 김천역 가는 중엔 시인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신의 시집을 선물로 주며 완주를 기원하며 사인도 해주었다.

아들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했다. 식당에선 주문하지도 않은 ‘족발’을 내놓으며 “오래 걸으려면 잘 먹어야한다”고 하신 식당 사장님, 고생한다며 밥 먹고 가라고 잡아끄는 아주머니, 경상도에서는 조깅하는 아저씨들과 만났는데 오만 원을 주며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라고 응원해 주셨단다.

왜관역과 김천역을 통과하면서는 지독한 더위와의 싸움이 지겹다 했다. 해가 나면 한 시간 걸기도 무척 힘들단다. 집에서 떠난 지 열흘째 대구역 사진이 전송됐다. 아내는 각종 편의점 쿠폰을 아들 휴대폰으로 싸주었다.

8월 8일엔 청도역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태극기 쥔 포즈. 내일은 밀양에 도착한다는데 아내는 안 되겠는지 내일은 일찍 밀양까지 KTX를 타고 가서 아들을 응원해주고 오겠단다. 결국 ‘깜짝쇼’는 잘 진행되어 돼지국밥집에서 식사하는 아들과 극적인 이산가족상봉을 했다. 아내는 아들의 배낭에서 무게 나가는 짐들을 여럿 가지고 돌아왔다. 이대로라면 곧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될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과연 애국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담론을 내 식의 언어로 축소하려 한다.

“아들! 애국이 별거겠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 말 글을 바로 쓰고 선조 대대로 살아 온 우리의 산하를 내 발로 직접 걸어보는 것, 그게 애국 아니겠어.”

## Letter 05

## 굿즈와의 전쟁

애청자

**학** 원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집에 돌아온 따님께선 인 사도 없이 방문을 뿡!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뭐 한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면서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방 안에서 영영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놀라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침대에 엎드려서는 영영 울고 있다.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딸에게는 항상 어떤 질문이든 어떤 이야기든 조심스럽다.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주 아주 최대한 나는 지금 너를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울먹거리며 이야기한다.

“나만 없어. 나만. 친구들은 전부 포카가 공긱인데 나만 포카가 문긱이야. 친구들 포카 거래하는데 나는 문긱이라 포카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나도 공긱 갖고 싶다고! 문긱은 이제 창피하다고!”

아, 큰일이다. 아이가 지금 저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푹푹 흘리면서 뭐라 뭐라 하소연하는데 나는 저 외계어들을 도저히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건 한국어가 아닌 게 분명하다. 분명 아이에겐 엄청 큰일 같은데 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제대로 이야기해 줘. 그래야 엄마가 같이 고민해 주지~” 하면서 살살 달래며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내 눈치를 한 번 보더니 이야기를 꺼낸다.

“나도 아이돌 포토카드 공식 굿즈로 가지고 싶어. 내 아이돌 포토카드는 그냥 문구점에서 산 문구점 굿즈인데 친구들이랑 아이돌 포토카드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려면 공식 굿즈가 필요해. 내 건 문구점 굿즈라 거래할 수가 없어. 나도 공식 굿즈 갖고 싶은데 내 용돈으로 부족한데 나도 사주면 안 돼?”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쉽게 말해서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 사진은 일명 가품 사진이고 친구들이랑 서로 아이돌 멤버별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려면 진품 사진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뜻 같다. 결국 저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저 연예인 사진들을 더 좋은 걸로 제대로 된 걸로 사달라는 뜻이다.

난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꼭 참아야 했다. 이젠 딸아이의 친구들과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내 용돈으로 도저히 힘드니 엄마의 지갑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이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갔다. 나도 한 때는 HOT의 토니 오빠 브로마이드를 부록으로 준다는 잡지를 사기 위해 내 용돈을 탈탈 털어보기도 했고 책받침, 장갑, 수첩 같은 굿즈

들을 엄청나게 수집했던 적이 있다. 물론 우리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시기가 빠르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굿즈를 모으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나름 유난스러운 이 엄마는 내 딸의 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문구점에서 파는 가짜 굿즈, 일명 문구를 갖고 있게 할 순 없었다.

아이와 휴대폰을 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식 굿즈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검색하고 아이돌 기획사 온라인숍에서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 주문해 주었다. 온라인숍에서 물건을 고르는 아이의 눈빛이 초롱초롱 너무 예뻐다. 이것저것 고르던 아이가 자기가 꼭 갖고 싶어 하는 멤버의 포토카드가 있다며 말을 꺼낸다. 그런데 그 카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한 유난 하는 이 엄마! 그 포토카드를 꼭 구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초중고 학생들이 채소마켓에서 포토카드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한다. 당장 채소마켓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도 완전 포토카드 공식 굿즈 온라인숍이다. 초중등학생들이 서로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서로 교환하고 나눔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딸아이가 맘에 들어 하는 포토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거래를 제안했더니 답이 왔다.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토요일 오전에만 시간이 가능한데 여기로 와 주실 수 있나요?>

학원에 가야 한다니 대답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 토요일 아침 판매자를 만나러 갔더니 우리 딸보다는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 예쁜 학생이었다. 난 분명 포토카드 한 장을 샀는데 예쁜 포장봉투에 포토카드 한 장과 이것저것 스티커며 딱지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넣어서 주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걸 일명 ‘덤’이란다. 약속을 잘 지키고 직접 와서 거래를 해주면 고마워서 이렇게 덤을 많이 준단다.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두 장을 꺼내어 물건값을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딸아이의 모습과 판매자 아이의 모습이 겹치면서 요래 아이들 참 순수하고 귀엽게 느껴졌다. 고작 물건값 이천 원만 주고 돌아온 게 너무 미안해서 채팅으로 음료 쿠폰을 하나 보내주었다.

판매자 아이는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기쁩니다 하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내주었다. 그 모습까지 너무 귀여웠다. 이 아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포토카드를 전해주었더니 아이가 엄마 최고라며 엉덩이를 흔들흔들거리며 아주 신이 났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또 문을 쿵 닫고 친구와 재잘재잘 통화를 한다.

사춘기가 시작된 딸아이가 공부보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굿즈들을 사 모으는 게 가끔은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화도 난다. 책상 위에 있는 아이돌 굿즈며 그 굿즈를 보관하는 통과 작은 서랍장 같은 것들을 보면 다 갖다 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다. 그러다가 또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다 해주고 싶기도 하다.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엄마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아이를 위한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 감수성 터지고 예민해지는 사춘기를 아이와 내가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도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길 기도해 본다.

## Letter 06

## 육 형제 흥이네

최선영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저는 충주에서 다섯 형제 엄마였다가 올해 7월 말 여섯 형제의 엄마가 되었어요. 막내가 여덟 살이었던 저희 가족에게 생가지도 못한 아이가 생겼고 마흔두 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떡해야 되지?’라는 막막함까지 느꼈어요. 아들 다섯으로 이미 주변에서는 ‘애국자다!, 애들 다 어떻게 키우냐?, 집에 돈이 많은가 보다, 엄마가 재주가 없네, 엄마 불쌍해서 어찌냐 등등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넘쳤죠.

한 번은 큰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해? 왜 사람들은 엄마한테 재주가 없다고 그래?”

애들도 그냥 흘러들지 않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큰아이에게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 우리 흥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동네방네 소문 좀 내야겠어”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저희 다섯 홍이는 다 남자아이라도 무뚝뚝하거나 본인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섯 형제가 마음 씩씩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가 일하다 힘들어서 속상해 있으면 아빠를 포함해 홍이들이 저를 웃게 해주기에 바쁘고요. 울고 있으면 조용히 와서 안아주며 토닥토닥도 해줘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온 얼굴로 걱정스러운지 왔다 갔다 하며 제 몸을 살피기에 바빠요. 어린이날이고 생일이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오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표현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친한 분들은 아들 키우는 엄마 같지 않다며 부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여섯째는 참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온 생명인데 다섯을 키웠으니 여섯도 괜찮겠지 하고 아이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니,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반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하고 누구는 밥은 자기가 먹인다고 하고 큰애는 형이 다 컸으니 형이 도맡아 키운다고 하고 싱글벙글 미소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행여나 제가 힘들까 봐 도와주기에 바빴고 막달일 때는 제가 혼자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하니까 서로 신겨준다고 달려들어서 제가 남편 사랑도 받지만 다섯 아들의 사랑도 한없이 받는구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응급 제왕수술로 막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6일간 떨어져 지냈는데 문 하나 사이로 서로 애뜻하게 눈물 펴펴 쏟아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 가족을 보며 간호사 선생님

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니 아이 여섯을 낳으셨나 봐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남자아이들이라 서로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격들이 오랫동안 빠지지를 못해서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가족 축구 시합 같은 걸 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칭찬도 아낌없이 해야 하고요.

아이들의 고마움은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 여섯째 막내가 태어나고 몸조리하는 엄마를 대신해 혼자 과수원 하는 아빠가 걱정돼 요즘 저희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아빠를 도와주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니 아빠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아빠 준비하는 소리에 일어나 함께 나갑니다. 아빠 혼자서는 더 힘들다며 함께하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도 고마워 이렇게 여성시대를 통해 마음을 전해요.

과수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씻고 막동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너희들. 막동이가 눈이라도 뜨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희들. 막동이에게 ‘크면 형이 놀아 줄게, 이 장난감 너 줄게, 형이 학교도 데려다줄게’ 온갖 약속을 하는 홍이들아. 엄마는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해 주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너희를 보면서 또 하나를 배우는 것 같고 사랑을 느껴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일하면서 듣는 라디오에 그런 엄마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선홍아 준홍아 진홍아 채홍아 설홍아 그리고 막내 찬홍이까지 모두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힘든 상황에서도 투정은 커녕 엄마 아빠를 위해주는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마지막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웃고 열심히 하는 우리 남편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홍이네 가족들♡

Letter 07

# 스쿠버다이빙 도전

백경선 | 경기도 오산시

**매**년 4월이면 우리들의 적금이 만기가 된다. 매달 5만 원씩 네 명이 1년 동안 적금을 부어 여행을 가는 거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끼리 시작한 적금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결혼해서 빠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수영장 모임' 적금이 되어버렸다. 같은 회사 친구와 나, 수영장에서 만난 동생 둘 이렇게 넷이 멤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초반에는 전국 곳곳을 여행하기에 바빴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 우리가 수영장에서 만났으니 물에서 노는 여행을해보자며 시작한 게 3년 전 해녀 체험이었다. 3년 전 여성시대에 문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보내 희은 언니가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즐거웠던 기억으로 우리의 적금 여행 컨셉은 아예 물놀이를 정해졌고 작년엔 필리핀 세부에 가서 무려 14시간 동안 바닷속 돌고

래와 놀기도 하고 계곡에서 다이빙도 하며 하루를 즐기는 강행군을 했었다. 다른 무리와 섞여 놀아야 했기에 과연 우리가 젊은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었지만 정작 우리가 체력이 가장 좋아서 어딜 가든 맨 앞자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었다.

별써 3년이 흘러 올해 1월이 되자 슬슬 목적지를 정하자는 말이 나왔다. 우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렇게 정해진 여행지는 일본 오키나와,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우리는 5월에 여행을 떠나는데 오키나와는 그때면 별써 한여름 날씨일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물놀이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오키나와 바다 위에서 동둥 떠다니며 밑을 보는 스노클링을 할지 아니면 산소통을 메고 바다를 5미터 이상 내려가 물속을 구경하는 스쿠버다이빙을 할지 결정해야 했다.

작년 세부 여행 때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해보고 얻은 자신감 때문일까 딱 2대 2로 의견이 나뉘었다. 사실 나는 스쿠버다이빙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수영이 코로 호흡하는 거라면 스쿠버다이빙은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리라 수영할 줄 모른다면 거기 가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면서 강사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면 될 텐데 별써 10년 이상 수영을 한지라 습관적으로 코로 숨을 쉬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따랐다.

하지만 새로운 물놀이에 도전해 보자는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1인당 10여만 원씩 하는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신청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몸무게, 키, 시력 정도를 묻는데 단체 메신저방에서는 난리가 났다. 서로 몸무게를 다 공개하며 웃고, 접수하는 동생이 나와 한 친구에게 언니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잘 되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스쿠버다이빙은 60세가 넘으면 안 받아준다고 하며 우리는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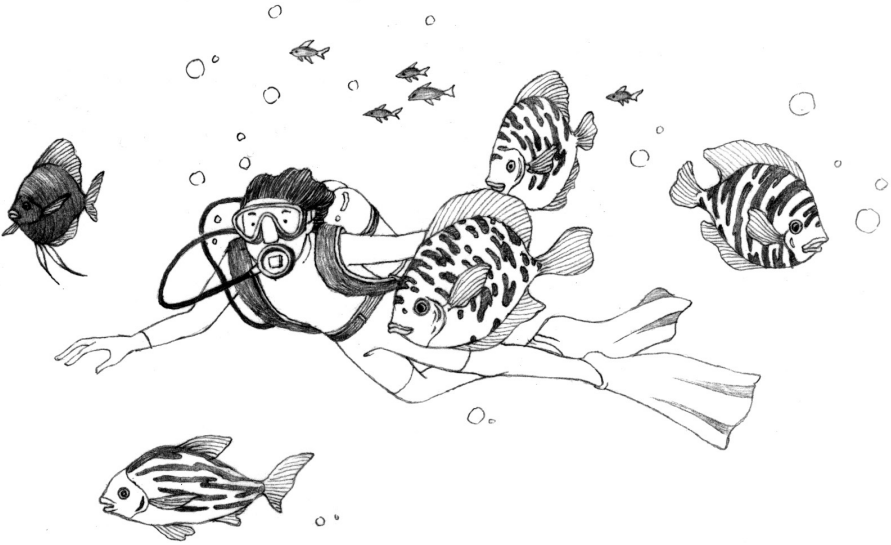
도 물에서 날 수 있고 체력도 20대보다 좋다고 장담하는데 그게 조금 서글펐다.

드디어 4월 19일 우린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날아갔다. 오후 1시쯤 도착하여 렌터카를 찾는 일부터 힘들었지만 가기 전 두어 달부터 유튜브로 공부한 일본어가 꽤 도움이 되었다. 차를 찾고 운전하고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는 것까지 네 명이 머리를 맞대니 안 될 일이 없었다. 물론 운전하는 동생은 운전석 위치가 반대라 적응이 쉽지 않았는지 자꾸 왼쪽으로 차를 붙여 몇 번 아찔할 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방 운전 실력이 나아졌다.

다음날 우리는 추라우미 수족관에 가서 거대한 물고기를 구경하고 돌고래쇼도 관람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빙 체험을 할 수 있는 푸른 동굴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우리는 스쿠버다이빙용 슈트를 입고 우리와 함께 체험하러 온 부부 두 팀과 공동으로 교육을 받았다. 부부들에게 물어보니 남편들은 다이빙을 아내들은 스노쿨링을 체험하러 왔다고 한다.

우리는 일렬로 서서 입으로 호흡하는 법, 귀가 아프면 코를 잡고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그때까지도 조금 두려웠다. ‘혹시 코로 숨을 쉬어서 수경에 물이 차면 어찌지? 바닷속 깊이 들어갔다 호흡이 부족해서 숨을 못 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우리는 2인 1조가 되어 나와 정순이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다. 드디어 입수! 배의 끈을 잡고 바다로 들어가 3분간 호흡하는데 순간 숨이 안 쉬어졌다. 얼굴을 수면 밖으로 내밀었다. 넣기를 반복하자 이내 호흡이 안정되었고 나는 강사의 손에 이끌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만의 호흡법이 생겼고 어느 정도 내려갔을까 슬슬 귀가 아파서 코를 잡고 입으로 크게 후 숨을 불었더니 정말



귀가 뺑 뚫렸다.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괜찮아졌다. 물 밖에서는 천근만근 무거웠던 산소통도 괜찮았고 이제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해졌다.

5미터 정도 내려가 바위를 붙잡은 채 강사가 준 물고기 밥을 들고 있으니 물고기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손으로 잡아보니 손 사이를 빠져나간다. 색깔이 있는 물고기의 행렬이 황홀하기까지 했다. 강사는



전등을 비추어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바위 위로 올라가 조금 쉬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 주먹을 내밀어 엄지척도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했다. 그렇게 30여 분을 바닷속에서 놀다 올라오니 춘심과 자영이가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다녀왔냐, 물속이라 너희를 못 봤다, 어땠냐 물어보니 그들은 너무 무서워 도중에 포기했다. 자영이는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만두었고 춘심인 몇 미터 내려가다가 도무지 숨이 막혀 중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배를 타고 나와 소금기가 빠지도록 슈트를 물로 헹구고 챙겨온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시간이 아까워 숙소로 오는 길에 만좌모에도 들렀는데 그때 찍어둔 사진만 보면 바다에 다녀온 사람들답지 않게 피죤피죤한 기색이 없다. 어찌나 변장을 잘했는지 모자에 선글라스에 입술까지 바르니 그냥 관광객 모드였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서도 호텔 실내 수영장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영하고 놀았다. 다음날에도 호텔 실내 수영장을 몇 바퀴 돌았고 그렇게 무사히 우리의 여행이 끝이 났다. 우리의 도전이 무사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개인적으로는 스쿠버다이빙에 성공한 게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내년에는 어디를 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후년에는 환갑이니 휴양지에 가서 편하게 수영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일단 환갑이 되기 전인 내년도 우리는 또 멋진 여행지를 찾아 떠날 것이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말고 다 해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행복한 여행기를 남긴다.

## Letter 08

# 실장님이 절 살렸어요!

박영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지 난주 제가 연차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려는데 주임님이 한발 먼저 받아 통화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걸 보니 구청에서 걸려 온 전화였어요. 구청에서 온 전화면 소장님을 찾는 것일 텐데 주임님은 소장님을 쳐다만 보다가 얼버무리며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있던 제가 “소장님, 구청에서 전화 왔어요~” 하고 눈치 봐서 전하는 데 전화 신호음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임님과 소장님이 무슨 일 있었나?’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 점심시간에 길에서 주임님을 만났는데 처음 본 사람처럼 아주 낯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임님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하니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그냥 가버리는데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은행 가시나?’ 했

지요.

사무실로 들어오니 과장님이 혼자 있다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실장님, 주임님 무슨 일 있대요?”

“그러게요. 좀 이상하죠? 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는군요. 무슨 일 있는지 제가 이따가 물어볼게요.”

점심시간 끝나고 조금 지나서 주임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 같으면 컴퓨터 켜고 온라인교육을 한창 듣고 있을 텐데 컴퓨터도 켜지 않고 모니터의 검은 화면만 가만히 바라보며 멍때리고 있더라고요.

주임님한테 다가가 말했죠.

“주임님, 무슨 일 있어요?”

그제야 절 바라보더니 웅얼웅얼.

“네 시에... 네 시에... 네 시에...”

“네? 네 시에 무슨 일 있는대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주임님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네 시에’만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주임님 휴대폰을 들고 사모님 전화번호를 물었더니 주임님은 고개를 흔들며 모른다는 의사표시를 했지요. 휴대폰의 단축다이얼 1번을 길게 눌러보았지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문자대화방 검색을 하다가 배우자인 듯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데 지금 주임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 빨리 오셔서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했지요.

택시 타고 온다며 사무실 주소를 찍어달라기에 주임님 휴대폰으로 주소를 보냈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인은 119에 전화했고 그분은 응급실로 곧장 갈 거라며 119에서 오면 안내를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구급차가 들어왔고 주임님은 어느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보호자와는 병원에서 연락하기로 했다네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퇴근하기 전 주임님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검사를 많이 했으며 뇌에 이상이 발견되었대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무척 긴장했고 저러다 치매가 오는 거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더 진행이 안 되어 정말 다행이고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후 퇴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원 치료 중인 주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눌하던 목소리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실장님! 실장님이 절 살렸어요. 고마워요~”

이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지요. 정말 잘 되었어요. 전처럼 목소리도 또렷또렷하시고 건강을 되찾은 듯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는 저도 건강관리를 해야 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습관처럼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Letter 09

## 첫 번째 가사 실습

박홍수 | 서울 용산구 새창로

아 파트에 혼자 있으니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예전에 경험한 가위눌림이 생기면 어쩌나. 가위눌려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 “억, 억” 거리면 아내가 얼른 나와서 깨워줘 진땀을 흘리며 깨곤 했는데 아내가 없으니 애들처럼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텔레비전 스포츠 채널을 틀어 놓고 잤더니 잠결에 ‘홈런’과 ‘버디’를 외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아침 여섯 시에 습관대로 눈이 떠졌다. 평소 나의 토요일 아침은 영화를 보는 문화 시간이라 영화를 검색하다가 니콜 키드먼이 주인공인 ‘가족이라서 문제입니다’를 골라 소파에 지긋이 누워 보기 시작했다. 역시 니콜 키드먼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어떤 줄거리일지 상상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럴 때가 아

니지!’ 오늘이 내가 스스로 정한 첫 번째 가사 실습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전기밥솥을 꺼내 들고 쌀독으로 가서 흰 쌀을 한 공기 퍼서 솥에 붓고 씻었다.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쌀뜨물이 쪽 빠지게 다섯 번을 씻어 손등이 덮일 듯 말 듯 물을 채우고 취사 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백미 취사가 시작된다’는 소리와 함께 45분 후에 밥이 된다는 메시지가 떴다.

다음에는 빨랫감을 모아 색깔 있는 옷과 흰색 옷을 나누고 색깔 있는 옷을 먼저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은 후 전원을 누르고 동작 단추를 눌렀다. 43분이 걸린다고 숫자가 떴다.

발코니에서 아내가 넣어놓은 세탁물을 걷어 각도 맞춰 개고 내 반 소매 셔츠 두 벌을 다렸다. 다림질은 내가 1979년 입대했을 때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익힌 솜씨다. 그때는 내 바지 주름에 베일 것 같았다.

이번에는 발코니 화초에 물을 주었다. 무성하게 자란 난의 줄기를 가위로 잘라 주다가 신문지 뭉치를 깔고 화분을 거꾸로 뒤집었다. 엉킨 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풀어헤쳐 쪽을 나는 후 나눠 심었다. 분갈이하고 바닥에 떨어진 흙은 물로 씻어냈다.

그리고 나니 세탁기가 ‘삐삐’거리며 나를 부른다. 얼른 세탁기에 가서 빨래를 꺼내고 건조대에 차곡차곡 널었다. 2층 건조대에 널린 빨래가 빨강 파랑으로 조화로워 마음이 뿌듯했다. 다음으로 흰색 빨랫감을 넣으니 세탁기가 위아래로 물을 뒤집으며 열심히 일한다.

이제 배가 고프다. 전기밥솥의 흰 밥은 차지게 잘 되었다. 어디 어디에 반찬이 있다고 말해준 기억을 더듬어 전자레인지에 장조림을 데우고 열무김치도 꺼내 한 상 차렸다. 따뜻한 밥과 소고기 장조림, 열무김치는 환상의 조합이다. 한 그릇을 먹고 아쉬워서 한 수저를 더 먹고



설거지를 하니 두 번째 세탁이 끝났다. 건조대 남은 공간에 빨래를 널고 나니 등에 땀이 난다.

이제 대청소할 차례. 걸레부터 빨아 놓고 아내가 하던 대로 마른 수건으로 먼지부터 닦아내고 청소기를 돌렸다. 그다음에 물걸레로 닦으니 몸에서 땀이 폭포처럼 흐른다. 청소는 1시간도 넘게 걸렸다. 닦은 걸레는 비누로 깨끗이 빨아 걸레 그릇에 담고 냉수 한 잔 마시고 땀을 식히며 잠시 쉬었다.

아침에 보던 영화를 다시 플레이하고 실내자전거에 올랐다. 요즘 더워서 게으름 피우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청소하느라고 옷이 젖은 김에 운동까지 하기로 했다. 오늘의 목표는 30km. 바닥으로 땀이 뚝

뚝 떨어진다. 더운데 가사 실습을 하고 자전거까지 타니 지친 몸이 더 힘들지만 중간에 ‘그만하자’고 유혹하는 내 마음을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 드디어 75분간 30km를 탔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 앞에 앉으니 천국이 따로 없다. 이제 내가 어젯밤에 계획한 첫 번째 가사 실습이 끝났다. 휴가분하다.

내가 가사 실습을 하게 된 이유는 아내가 딸과 손자랑 갑자기 짧은 태국 여행을 떠나서다. 나는 방콕에 몇 번 갔다 왔지만 해외여행의 기본 같은 방콕에 가보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항공사에 다니는 딸이 깜짝 여행을 기획했다. 그 일정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작되어 아내가 없는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다.

나는 올해 예순여섯 살, 아직 현직에서 일하는데 은퇴하면 제일 먼저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요리를 배우려 한다. 그동안 맛난 음식을 먹게 해준 아내한테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고 혼자 살 수 있는 기술도 익히려 한다.

자체평가 결과 첫 번째 가사 실습은 자화자찬할 만큼 대성공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 가사 실습. 아내가 가사를 알아서 하니 나는 기회가 없었고 일요일에 청소나 하는 정도였다.

2차 가사 실습은 경제 활동을 더 하고 몇 년 후어나 했으면 좋겠다. 나는 늦게 배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사가 쉽잖다는 건 알지만 직접 해 보니 훨씬 어렵다.

방콕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아내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반갑다. 무사하게 어서 오시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마음이다. 여행 다녀온 아내가 자기 없는 동안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좋겠다.



## Letter 10

## 신안으로의 초대

애청자

나 에겐 1년 만에 찾아온 여름휴가, 아이들에게겐 꿀처럼 달콤한 여름방학인데 갈 곳이 없다. 아이들은 심심하다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려 한다.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지만 한부모 가정이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꼭 참아야 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동파인 이웃 언니가 며칠 전 던지듯 툭 말했다.

“멍때리고 있는 당신, 당장 짐을 싸 보시게나~”

“갈 곳도 없는데 무슨 짐을 싸?”

“애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데 언제까지 방구석에만 있을 끼고? 나랑 우리 친정집에나 가보자.”

생각만 많은 나는 “아이고, 됐다.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말썽쟁이 애들을 돌씩이나 데리고 그게 무슨 민폐고?” 했다.

그러자 생각이 깊은 언니는 “아이들도 너도 여행이 필요하다. 콧구

멍에 바람 좀 넣어줘야 여유도 생기고 찾고자 하는 길도 보이지. 너도 한 부모 나도 한 부모 이럴 때일수록 멩쳐야 산다. 우리 애들도 너희 가족 없으면 안 간다고 한다. 빨리 서둘러라.”

그렇게 떠난 신안으로의 여행! 출발 전부터 아이들은 물론 나까지 설렘. 언니의 승합차에 여행 물품을 실으니 프로 여행러가 된 기분이었다.

전국에서 섬이 제일 많다는 신안으로 들어서니 그냥 눈 뜨고 있는 자체가 축복인 듯 아름다운 섬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1004개의 섬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언니의 친정집이 있는 증도에 들어섰다. 그 많은 짐을 들고 혹은 2명씩이나 붙인 낫선 내가 왔는데도 언니의 부모님께서는 나를 친딸처럼 환영해 주셨다.

통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짐을 풀고 있으니 그냥 눈물이 외락 쏟아졌다. 나는 언니를 외락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언니~ 나 같으면 귀찮아서 혼자 왔을 텐데 나랑 우리 애들까지 챙겨줘서 진짜 고마워. 나 꼭 해외여행 온 기분이야!”

해외여행을 단 한번도 안 가본 아이들 역시 매미처럼 통창에 붙어서 “엄마, 꼭 해외여행 온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해외 아니에요?” 하며 신나 했다.

저녁 마실을 나가 해안가를 걷는데 갑작스러운 철계들의 등장에 우리는 철계를 밟지 않으려고 우스꽝스러운 걸음을 걸어야 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즐거운 비명을 질러댔다. 저녁노을이 내려앉는 조용한 신안의 바닷가를 거닐며 우리 가족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만큼 행복해서 서로의 볼을 꼬집으며 한참을 웃었다.

마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바다 밥상이 거하게 우리 앞에 차려

져 있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함초로 만든 함초 물김치와 전, 칠계로 만든 튀김, 청정갯벌에서만 서식하는 짙둥어로 만든 탕까지 정말 귀빈 대접 받는 기분에 밥상 앞에서 또 한 번 울컥했다. 나는 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밥 한 공기 더’를 외치며 신안의 맛을 느끼고 또 느꼈다.

타인의 방문에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슬로 시티 신안에 왔으니 복잡한 마음 쫓기는 마음 다 내려놓고 힐링하고 가라’ 하시던 이웃 언니의 부모님께 목이 멎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력무력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나 혼자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곧 있으면 계약 만료인데 어디서 또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나?’ 매일매일 걱정을 저금통에 저금하듯 사는 ‘걱정쟁이’ 나를 선뜻 자신의 친정 집에 초대해서 ‘인생 별거 없으니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자’라며 지친 내게 힘을 준 이웃 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행 후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 언니의 친정어머니께서 싸주신 칠계장과 함초 물김치에 밥을 먹으니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으라차차 힘이 난다.

나도 내 가정만 들여다보며 살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음 크기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다.

## Letter 11

## 타인의 배려

배남식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매 주 이들은 산책길에 나선다. 왕버들이 짙게 드리우는 시원한 그늘 터널을 지나 구릉지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사이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는 큰 연못이 있다. 금실 좋기로 소문난 오리 부부는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가 최고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유유자적 거닐며 정겹게 살아가는 오리 부부의 모습은 못사람들이 닦고 싶어 하는 롤모델이기 때문이다.

“앗! 근데 오늘 오리 부부가 왜 저러지?”

여태껏 보지 못했던 행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곳으로 쏠렸다.

“어머머! 그러게요. 오리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산책길을 걷던 아주머니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오리 부부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며 말했다. 늘 다정했던 오리 부부가 낯선 오리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주둥이로 번갈아 가며 낯선 오리의 머리를 물속으로 사정

없이 밀어 넣고 있었다.

“아니, 오리들 사이에도 따돌림이 있나? 낯선 오리가 죽겠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한번 더 깜짝 놀랐다. 그들은 낯선 오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오리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듯했다. 물에 빠진 낯선 오리가 몸의 균형을 잃고 머리를 연방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니 주둥이로 낯선 오리의 머리를 수면 위로 떠받쳐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자칫 오리 부부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겠다 싶은 모습이였다. 안타까운 마음을 졸이며 구경꾼들의 틈을 비집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된 일인가? 가까이서 보니 물에 빠진 오리는 플라스틱 인형 가짜 오리였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오리 부부는 플라스틱 인형 오리를 구조하기 위해 죽을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너무 애처롭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재빨리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 긴급 출동한 직원이 보트를 타고 연못 한가운데로 들어가 플라스틱 인형 오리를 건져 나왔다. 오리 부부도 연못 가장자리까지 뒤따랐다. 목을 길게 빼고 눈은 휘둥그레 크게 뜬 채 ‘썩 썩’ 울음을 쏟아냈다. 그리곤 한동안 주위를 맴돌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물 위를 헤엄치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제야 연못 독에 있던 꽃말이 눈에 들어왔다. ‘인형 오리를 연못에 던져 넣지 마시오.’ 경고문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탓하며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옛 속담처럼 사람들이 던져 놓은 플라스틱 인형 오리 때문에 선량한 오리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산책길 내내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던 오리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에 재생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며칠 전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파트 앞 근린공원을 지날 무렵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 애들아! 이것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야!”

감탄하며 아이들 틈바구니로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궁금한 표정으로 한 아이가 물었다.

“우리 주위에서 보기가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여 법률로 지정해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 하지요.”

간략히 설명하자 아이들은 장수하늘소가 잘못될까 봐 걱정스러워 안달이 났다. 장수하늘소는 배가 하늘로 뒤집힌 채 허공을 향해 발을 휘젓고 있었다. 살려 달라는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 장수하늘소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우리 얼른 살던 곳으로 보내 주자.”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장수하늘소 허리를 잡아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길옆 대왕 참나무에 올려주었다. 장수하늘소는 나무 기둥을 타고 천천히 힘겹게 위로 올라갔다.

‘장수하늘소야! 잘 가 안녕!’

아이들의 작별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소는 알았다는 듯이 날개를 부르르 떨더니 힘차게 숲속 멀리 날아갔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이 정겹게 인사했다.



“장수하늘소를 살려준 너희들이 더 고마워.”

나도 웃으며 두 손 크게 흔들어 화답했다.

이처럼 일상의 조그마한 일들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배려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 Letter 12

## 삼촌, 괜찮아요?

박춘화 | 서울 마포구 용강동

**딸** 결혼식을 5개월 앞두고 생애 첫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아내와 나는 상견례 때 입을 옷을 구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갔다. 나는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샀고 아내는 나와 결혼하고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회사한 원피스를 구매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섰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말이 끊겨서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말실수해서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 식구들에게 약점 잡히면 어찌나!’

약속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 나름 딸을 잘 뒷바라지했으니 당당하게 대면하면 된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상견례장에 갔다.

우리 식구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예비사위 식구들이 도착했다.



사돈 부부와 작년에 결혼했다는 딸 부부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가도 함께였다.

예비사위 아버지와 인사말을 나누며 악수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안사돈에게 말했다.

“아기 돌보시느라 힘드시죠?”

사돈 부부는 올해 3월부터 외손녀를 돌보고 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사돈 부부는 활짝 웃었다. 사돈 내외는 평생 맞벌이 부부로 살다 얼마 전 은퇴하고 결혼한 딸이 선물과도 같은 새 생명을 안겨 주자 삶의 활기를 찾았다고 했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걱정과 다르게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아기도 분위기 파악을 한 듯 방긋방긋 웃었고 낮가림이 없는 예쁜 아기를 우리 식구는 한 번씩 번갈아 안아 보았다. 아기는 서먹할 뻔한 상견례장을 위해 준비된 선물과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애들이 준비한 과일 꽃바구니를 받고 다 같이 기념 사진을 찍고 난 후 상견례장을 나눴다.

“아빠, 아기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상견례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째 딸이 속삭이듯 말했다. 상견례를 마친 우리는 신랑·신부 엄마들이 입을 한복을 맞추기 위해 종로에 있는 한복집으로 향했다. 한복 상점에서 디자인이 다른 한복을 입고 서로의 모습을 평가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인 양 친밀감이 생겼다. 긴장하느라 힘든 하루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흥가분했다. 마치 어려운 인생 숙제를 하나 해결한 기분이었다.

“아빠 엄마, 나 담달 초에 출가할 거야!”

큰딸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출가라니?”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다.

“오빠가 사는 오피스텔이 며칠 후에 계약 만기라 이사해야 하는데 어차피 신혼집 구해야 하잖아. 이참에 신혼집을 일찍 구해서 내 살림도 옮기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까지 4개월도 더 남았는데?”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우린 서로 마주 보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결혼식 할 때까지 집에 있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출가해도 되지 않니?’라는 말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그냥 꿀떡 삼켰다.

딸은 아내가 항암 치료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노심초사하며 키운 소중한 자식이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었고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다. 예비사위는 외모도 출중하고 촉망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는 말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우리 딸을 힘들게 하면 어쩌지 싶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딸과 함께 예식장과 신혼집을 계약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나는 사위가 딸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았고 항상 딸을 배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딸이 신랑감을 잘 만났다는 믿음이 생겼다.

지난 6월 1일 딸은 진짜 짐을 싸서 신혼집으로 갔다. 딸이 쓰던 침대와 불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니까 방이 뿔뿔했다. 딸이 시집가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계약한 살림이 신혼집으로 들어가던 날 우리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딸 집에 방문했는데 새살림으로 잘 정돈된 깨끗한 신혼집을 상상했으나 신혼집은 말 그대로 썩대밭이었다. 거실에는 소파만 겹연쩍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전깃줄과

전자제품이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 싱크대 앞은 그릇이 방에는 옷과 상자, 책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에 아이들은 아침도 못 먹고 있다면서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밥부터 사 먹이고 어수선한 신혼집에서 딸이 준비한 차를 마신 후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 앞에 서서 우리 부부가 신발 신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이 안녕히 가시라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돌아서서 고개를 떨구었다. 생애 처음으로 딸에게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받은 날이었다.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선 딸의 눈물이 똑똑 흘러내렸다.

며칠 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7년 전에 결혼한 조카딸이 안부 전화를 했다.

“삼촌, 결혼식 날 도와줄 일 없나요?”

“고맙다. 근데 애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고 우리 딸은 두 달 전에 신혼집으로 들어갔어.”

“별써요? 삼촌 괜찮아요? 나 결혼할 때도 삼촌 식당에서 많이 우셨잖아요.”

‘괜찮냐’는 조카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다. 지난 두 달간 딸과 예비사위를 만나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도 많이 나누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고 담담하던 심장이 ‘삼촌 괜찮냐’는 물음에 갑자기 요동을 쳤다.

“응, 뭐…… 그냥…….”

나이 들어서 출가하는 딸이 훌가분하고 잘 되었다는 생각도 했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는 딸



이 대견하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삼촌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결혼식 때 보자.”

내가 울먹이느라 말을 잊지 못하자 수화기 저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멀어졌다.

“제가 지금 갱년기라서 12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반려견이 꼬리만 흔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허니 제가 결혼식 때 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견례장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 내가 했던 말이다.

딸 결혼식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딸의 결혼식은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부부에게 분명 더할 나위 없는 인생 선물인데 지금 내 마음은 요즘 날씨보다 더 고약하다.

## Letter 13

## 수저 세트

김삼열 | 서울 성북구 한천로

**문** 앞에 낫선 택배가 배송되었다.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기에 의아해하며 물건 박스를 살펴보니 '견과류'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에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2-3일 지나면 보낸 사람이 스스로 나타날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데 보낸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 주질 않았다. 그때부터 보낸 사람을 찾아 헤매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더듬어가다가 고개를 가웃했다. 보내면 보낸다고 했을 텐데 더구나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 만한 친구는 없었다. 친구에서 집안 식구들로 범위를 넓혔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누나가 보냈나?' 하면서 옆구리 찌르듯 전화로 판청 피우며 간을 봐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

찾는 걸 포기하고 박스를 여니 소포장 견과류가 한가득 들었다. 며칠을 기다렸으니 잘못 배송된 거라고 쫓아올 사람은 없을 듯싶었다.

혹시나 몰라 불안을 감춘 채 나누어 먹으면서도 조금 꺼림칙했다. 하지만 처음에만 그랬지 조금 지나니 자연스럽게 견과류에 손이 갔다. 의문이 풀린 건 보름도 훨씬 지나서 한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였다. MBC에 사연 보낸 게 당첨되었는데 선물이 5만 원 이상이라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흥분되고 날아갈 듯한 느낌은 8년 전이 처음이지 싶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짜릿한 전율로 남아있다. 당시 사연을 보내놓고 라디오에 온 관심을 보냈지만 내가 보낸 사연은 좀처럼 방송되지 않았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내 사연은 별 볼 일 없어서 채택이 안 된 줄 알았다. 내 미련이 조금 열어지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 뜨문뜨문 다른 사람의 사연을 청취하며 일상을 보낼 때 귀한 선물이 내게 도착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방송은 듣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듣기’로서 경석 씨가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저기 퍼 날랐다. 반응은 엄청 뜨거웠다. 그런 재주가 너에게 있었느냐고 칭찬 반 부러움 반이었다. 윤동주님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을 읽다가 나는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지리산에 물어 보기로 하고 지리산을 종주하며 느낌을 적었는데 서경석님의 다정하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내 사연을 듣게 된 것이다.

그때 받은 수저 세트와 냄비 세트! 명장이 만들었다는 수저는 쓰기가 까워 딸한테 “너 시집갈 때 가져가~” 했는데 어느덧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얼마 전 그 수저 세트를 꺼내보니 여전히 금빛을 띠며 명장의 품격을 뽐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도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른다. 수저에 아빠의 사연이 담겨 있어 더 좋다는 딸. 냄비 세트는 그동안 하나씩 꺼내 사용하고 전골냄비만 남았는데 딸은 그것도 달라고

한다. 오랜 기다림 속에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은 드디어 소중한 주인을 찾았다.

내 딸 별님아, 어렵פות이 그때를 기억한다. 할머니와 함께 대기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안고 나오는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예쁜 공주님입니다’ 하는데 간호사 품에 안겨서 울지도 않고 고개를 뒤로 젖혀가며 나를 쳐다보던 너는 눈만 크고 온통 주름투성이였어. 할머니는 연신 예쁘다고 미소를 띠셨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예쁘다는 말이 절대 안 나오고 열은 한숨만 나왔지.

어느 날은 퇴근했는데 엄마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어서 울고 보채는 너를 안고 거의 뜯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한 적도 있고 이마에 손을 얹으니 열이 펄펄 끓어 땀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기억도 나는 걸 보니 초보 아빠에게 너는 조금 버거웠구나. 하지만 크면서 나를 빼앗은 너를 보며 순간순간 행복을 느꼈지. 할머니가 계셔서 커다란 힘이 되었고 아빠도 너를 바라보며 늦게나마 조금씩 철이 들어갔단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 날 문득 “아빠, 내 친구야~” 하면서 가게로 데리고 온 청년은 키는 아빠보다 한 뼘은 커 보였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편한 인상이었지만 아빠는 그 상황이 낯설었다. 커피 마시러 간다며 친구를 몰고 가는 너의 뒷모습. 왠지 미웠다. 너도 밍고 그놈도 밍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 인연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험난한 세상에 오직 내 편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 어른이 되어 여태껏 살아보니 조금은 알겠더구나.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서 언제나 우리를 허덕이게 만들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구나. 살아보니 별거 없더



구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때도 있었지.  
하지만 누구의 명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더구나.’

나는 ‘내가 잘 살았으니 나처럼 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나처럼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구나. 너희는  
아빠보다 현명하고 똑똑한 것을 안다. 넓은 바다는 언제나 출렁거리  
고 때로는 성난 태풍이 되어 으르렁거리지만 세상에 내 편인 오직 한  
사람만 믿고 길을 찾아간다면 모든 것이 고되어도 감사하는 마음과  
웃음은 너희 곁을 지켜주지 싶다.

너희들의 새로운 제2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상은 운동 너희를  
위해 열려있고 너희들은 그 세상을 제대로 즐기기를! 엄마 아빠도 묵  
묵히 뒤에서 너희들을 응원할게. 사랑한다.



## Letter 14

## 딱 20년 만입니다

국형진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저는 2004년에 여성시대에 편지가 방송되었고 월간 여성시대에 '그래도 우리 희망을 노래하노라'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국형진입니다.

당시 전 재산인 화물차를 도난당해 절망 속에 살다가 여성시대에 청자의 도움으로 화물차를 찾았지요. 그때 서른 살 청년이던 저는 어느덧 50대라는 아직 낯선 중년이 되었고, 3살과 2살이던 아이들이 스물셋과 스물둘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니 20년 세월이 쏜살같네요.

화물차를 찾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던 저는 다음 해 화물차를 팔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던 끝에 청소년 상담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낸 저의 경험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낸 저의 라이프 스토리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

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에 상담 대학원에 진학하고 청소년기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박봉과 부족한 처우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했으나 희망이라는 삶의 자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고향 익산에서 일을 시작한 몇 년 후 전남 영광군으로 직장을 옮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년센터장, 청소년수련관장 등을 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희망을 찾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2024년 봄, 지역 학부모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갑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손가락 끝부분이나 손바닥의 감각이 무뎠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으나 혈행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뇌혈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좌뇌 전두 부분에 혈류를 전달하는 뇌혈관이 소멸하는 희귀성 난치병이라더군요.

병원에서는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의료 대란이 한창이라 진찰받은 서울의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수개월 후거나 가능하더군요. 내 머릿속의 혈관은 하루하루 소멸해 언제 마비가 올지 언제 뇌졸중이 올지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지역 대형 병원에서 한 달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고 한 달을 보낸 후 지난 5월 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중 약간의 지주막하출혈 현상으로 언어, 오른 팔다리에 후유증이 남았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빠르게 후유증을 지우도록 재활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던 제가 나올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생활하다 보니 벌써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의도치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려움을 대하는 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딱 반절 산 제게 온 질병은 달려온 50년을 돌아보게 하고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을 우선하느라 가족과 제 건강을 돌보지 못한 50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한 가정과 일이 양립하게 균형을 잡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성시대 가족 중에도 힘든 상황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일과 가족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남성 여러분, 녹록치 않은 삶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보게요.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손편지

## 천만원 있는 여자 애정자

세상에 돈도 없는 짝들이

가난한 시저 태고픈 설움에 한이 맺혔었다는 남포현  
세상에서 저털 돈 안쓰는 남자.

본인이 못쓰고 안쓰며 곁에 사는 마누라라도 여유있게 쓰라고

했으면 좋으려만 나도 안쓰니 너도 쓰지마라주의 거절해서

여직 한달 부식비외엔 단 한푼도 안주는 남자 싸우기도

대충이했고 그만 살려라고 해왔고 하지만 아이들 있는데

가정엔 깨달음 없었기에 그냥 참고 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저 나자는 제가 엄청 호수 흡수하며 사는줄 압니다  
 세상에서 공부만큼이나 안하곤 꾸준히 밥먹고 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잉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께서 세뭇도 눈도 모르셨던 시대에 살으셨기에  
 시어머니께서 장까지 봐다가 주셨다는데 그건 돈과  
 자라서 그런지 돈이 들어가는 일엔 뭐든 목인이 해야 했고  
 목인의 처각이 켜어져야 했습니다

셋트전 큰따아가 지방으로 방경을 만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거할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지방이나 그런지 집 값도  
 싼고 전세는 얻으려 했었는데 전세 가격에 조금만 더 주면  
 DHD대는 흥분 있었기에 남편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개매

계약서를 써버렸답니다

덕분에 나이가 들거나 소외 인종인 한 노인 잘살다가

이런에 자금을 파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만큼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살때 가격보단 조금

올랐기에 잔금을 받았는데 그해도 마누라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득을 얻게 되었으니 내게도 포상금을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저 남자로 이전 나이가 들었는지 선뜻 천만원쯤은 제게

주었습니다.

특정하게 쓸때도 없지만 제 통장으로 천만원이

들어와 있음에 엄청 배가 뭉겼습니다

누가 자기는 이대나을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이제

천만원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디 .

남들은 웃웃은지 몰라도 저 짝들남자와 산2년서 한번도

가져받지 못했었던 거슴을 저 이제 가져갔습니디

남의돈 1억이 부러지지 않고 아세상에선 제가 제일

무자비것 같습니디.

चा7들에게 입치비디

야들아 ! 먹고살은거 있음 D할해 다 사줍께 !

나 천만원 있는 여자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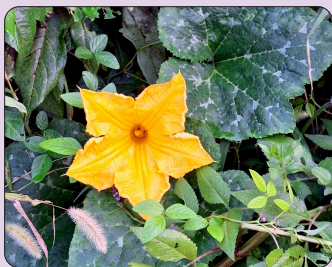
## 여성시대 사진방



[5679] 흰땅콩 수확하면서 여성시대 재밌게 듣고 있어요.



[0338] 우리 국화가 예쁘게 몸단장하고 있어요. 참 행복한 가을이네요.



[3627] 호박꽃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2089] 주말에 손톱에 봉숭아 꽃물 들었어요. 환갑 넘은 남편이 정성스럽게 랩으로 싸 주었어요. 올 남편 최고.



[1242] 9월호 책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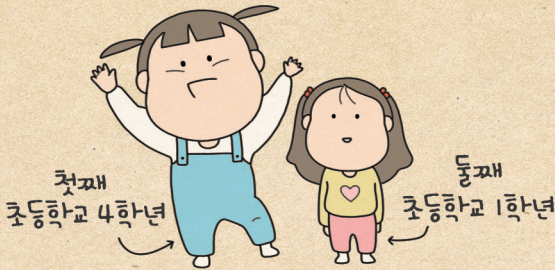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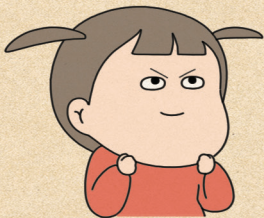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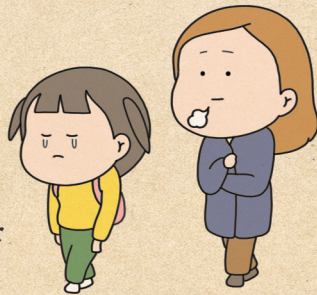
경기도하남시의 여성시대 가족  
강주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첫째는 어려서부터 관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전의 반장  
3학년 1학기 회장 선거에서  
쓰라린 낙마의 기억이 있던 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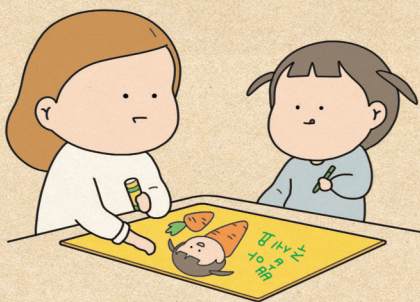


4학년이 되면  
꼭 반장이 되고 말 거라며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지요.





옆돌기 선거 유세를 겨우겨우 말리고



열심히 준비해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번에도 낙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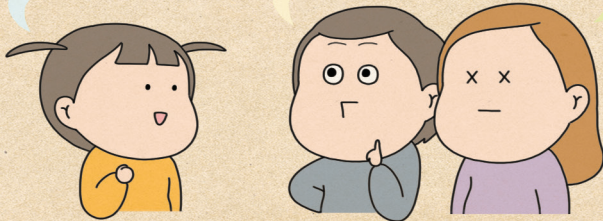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하는 딸을 보는  
제 마음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 대망의 4학년 2학기

이번엔 패말도  
선거 유세도 필요 없어!  
공약으로 승부할 거야!

오! 훌륭한데!?

포기를 모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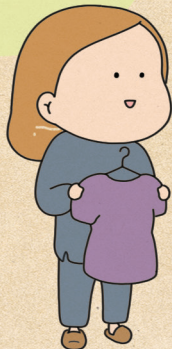
딸의 선거공약은 이랬습니다.

1. 딱지가 없어 딱지치기를 못하는 학우를 위해  
딱지 대여소를 설치하겠다!
2. 집에 있는 안 쓰는 스티커를 가져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스티커 거래소를 만들겠다.
3. 여유시간엔 각자 준비한 웃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웃음 창기 챌린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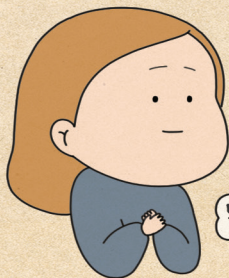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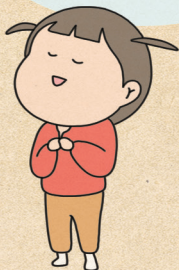




딸 오늘 회장 선거인데  
멋지게 입고 가야지.



아냐~  
공약이 좋으니 당선될 거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멍클

한 학기동안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꼼꼼히 준비한 딸이  
어찌나 기뻐하던지요.

그렇게 딸은  
학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약으로  
멋지게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후훗

우리 딸 축하해! 아주 멋졌어!  
공약을 실천하는 멋진 회장이 되어줘!



# 지구를 살리는 국내 1위 친환경 기업

IBK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거래고객

**(주)동남리싸이클링 전기도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하루에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면서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구는 오염되고 있다.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 기업 (주)동남리싸이클링의 활약이 지구를 살릴 것이다.

동남리싸이클링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이다. 폐기물 중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주력 사업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순환자원을 수집·운반·선별하고 전문적이고 규격화된 자원재생상품을 판매하며 이익 공유와 복지를 중시하며 직원들과 동반 성장하는 것이 회사 운영의 목적이다.

2000년도 해운대에서 작은 고물

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전기도 대표는 아파트의 생활폐기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당시 부산에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었고 공동생활문화가 확산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초기에는 쓰레기 단순 수거 및 재활용 업체에 납품하는 일만 하다가 2010년에 법인회사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 쓰레기 수거는 물론 본격



적으로 선별, 압축 용융작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공장을 세우고 폐수지류, 합성수지류뿐 아니라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유리병, 금속 캔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에는 재활용 선별 공장, 제지원료 압축공장, 비철-금속 처리 공장을 지어 이전하였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후 환경부 자원순환 전국 1호 인증 업체로 인정받았다.

“과거에는 아무리 재분류 하고 재활용해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어져야 상품이 되지 그 이전 단

계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법이 제정되도록 민원을 많이 넣어서 순환자원이라는 인증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해서 선별하고 압축 과정을 거치면 폐기물 관리법에 예외 적용을 받아서 하나의 상품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별·분류된 쓰레기의 적재 및 보관이 용이해지고 재활용 쓰레기의 실효성도 높아졌다. 동남리사이클링 이전에는 수거와 선별, 자원 순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수거





와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었다. 수거 차량이 아파트와 관공서 등에서 각종 폐기물을 싣고 오면 직원들이 분리, 압축, 감용, 파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공정을 거친다. 현재 부산 지역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량의 30% 이상을 동남리싸이클링이 처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설비는 모두 전기도 대표가 직접 고안한 것이다. 전국의 재활용 업체들이 직접 찾아와 모방하여 만들 정도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모든 아이디어는 경험에서 나와요. 현재 환경 산업의 시스템이나 법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도 현실화시키기 힘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많은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대표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국제라이온스 355-A(부산)지구 총재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제봉사단체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IBK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이정화 지점장은 “전기도 대표님은 약 25년간 회사를 성실하게 일귀오셨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베풀면서 모범이 되어 오신 기업가”라고 존경의 표시를 하며 “친환경

사업은 앞으로 더욱 유망한 분야로 우리나라 업계 1위 기업인만큼 동남리싸이클링이 앞으로 더욱 번창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도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동남리싸이클링 전기도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금사공단지점 이정화 지점장

### ! (주)동남리싸이클링 전기도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하나뿐인 지구를 되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져라.
2.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라.
3.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

(주)동남리싸이클링

대 표 전기도

전 화 051-314-5451~3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천로 53

홈페이지 <http://dnrc.co.kr>





## 투시패널 기술로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다

IBK기업은행 아산기업성장지점 거래고객

**(주)인투시 오재환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현대사회는 매우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 및 건물에도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현대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주)인투시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사생활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인 투시패널 기술을 개발하였다. 스마트 인테리어의 선두 주자로 성장의 출발점에서 있는 인투시를 소개한다.

인투시는 내부 투시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이다. 2018년에 설립되어 자체 개발한 OBB글라스 투시패널을 기반으로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해 왔다.

인투(into)+시(see)라는 기업명은 내부를 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2016년 최초 기술 특허를 등록한 이래 투과율 가변 패널 개발 기술과

에너지 세이빙 OBB글라스 개발 기술을 비롯하여 14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개별국 특허를 등록해 놓았다. 이런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는 가구장이거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약품보관함, 납골안치단 등의 제품을 개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



라 죽은 반려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내부부를 보여주는 반려동물 유골함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가구나 가전제품에 인투시의 기술을 더하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평상시에는 고급스러운 블랙 유리지만 모션뷰 로고에 발을 대거나 센서에 손짓하면 내부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번거롭게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 단순히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기 위해 문을 여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냉기가 빠져 나가면서 내부 온도가 변화하고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 하지만 투시도

어를 적용한 냉장고는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부를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냉장고의 경우 평상시에는 도어를 거울로 사용하고 내부부를 보고 싶을 때는 투시 가능한 기능을 적용하여 제품을 리뉴얼 하였고, 최근 개발한 반려동물 유골함은 반려동물이 살아 있을 때는 장난감으로 이용하고 죽은 뒤에는 내부에 유골함과 사진을 넣어 반려동물 이름을 부르면 내부가 보이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용도의 실용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단순히 가구나 가전제품에만 인



투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 유리에 인투시가 개발한 PDLC 스마트 윈도우 방식을 적용하면 전압을 인가 안 했을 때는 투명한 유리지만 전압을 인가하면 불투명 유리로 바뀌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유리를 건물에 적용하면 사생활 보호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에너지가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창업 후 시행착오도 많았다. 내부 투시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국내 최초로 보니 금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술 개발에만 5년이 걸렸다.

개발자 출신의 오재한 대표의 아이디어와 함께 노력해 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회사 창업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기술 개발에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저희 기술을 알리고 영업에 주력해야 할 때죠. 가구, 창호 등에 인투시의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인테리어를 대중화하고 싶어요. 더불어 점점 강화되는 법에 따라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 건물에 저희 기술이 많이 적용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만을 바탕



으로 성장해 왔지만 기술을 적용할  
가구 및 가전제품을 찾아야 하는 것  
에 어려움을 느껴 가구를 직접 제작  
하기 위해 제조 공장도 운영하기 시  
작했다. 현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대  
리점도 전국적으로 모집 중이다.

IBK기업은행 아산기업성장지점

김택근 지점장은 “인투시는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환경에도 이바지할 수 있  
는 탁월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  
며 “이제 기술 개발을 마치고 급성장  
의 출발점에 있는 인투시를 IBK기업  
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응원했다.



(주)인투시 오재환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아산기업성장지점 김택근 지점장

### ① (주)인투시 오재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라.
2. 트렌드에 따라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하라.
3.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라.

#### (주)인투시

대 표 오재환  
전 화 041-557-8004

주 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307-7  
홈페이지 <http://www.into-see.com/>

##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이루어진 꿈
- 85 코로나 시대의 연애
- 88 사람이 사람으로 잊혀지나요?
- 92 석모도로 가는 선착장에서
- 96 라웅 화산이 이어준 사랑

여자는 모른다

- 103 엉덩이 때문에
- 106 만사위로 사는 법



사랑 사랑 사랑

## 이루어진 꿈

애청자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은 신기한 꿈을 꾸면 해몽을 찾아보시나요? 저는 남들보다 꿈을 많이 꾸는 편이고 꿈 내용도 생생할 때가 많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찾아보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2009년 제가 서른여덟이 되던 해,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2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참 신기한 꿈을 꿔요. 꿈에서 저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김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꿈속이라 얼굴이 가물거려 바로 보이지 않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 뚫어져라 쳐다보니 에구머니나! 제가 오랫동안 좋아해 온 가수 조용필 님이더라고요. 꿈속이지만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가슴이 쿵닥거리고 사인을 받아야 하나 말을 걸어볼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어

디션가 난데없이 개들이 나타나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개를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땀으로 흥건해진 몸을 일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길몽이야, 흉몽이야? 연예인이 꿈에 나오면 복권을 사라는데 복권을 사야 되나? 근데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개꿈인가?’

해몽을 찾아보려 했지만 꿈 내용이 워낙 뒤죽박죽이라 아무 내용도 알 수 없었고 저는 일단 꿈 내용을 휴대폰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곤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요.

며칠이 지나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서른여덟이 됐는데도 청첩장은커녕 연애 소식 하나 들리지 않는 저를 우리 엄마보다 더 걱정해 주는 친구였어요.

“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알지? 부목사님 친구가 사람을 새로 만나 보고 싶다고 주선해달라 했대네. 너랑 딱이지 않냐? 어때?”

“아 그래, 부목사님 친구면 믿을 만하긴 한데.”

“그치? 원래 소개팅은 주선자 믿고 하는 거래. 부목사님이 이상한 사람 소개해 주겠어? 한 번 나가봐.”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원래 친구도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부목사님은 유학도 다녀오셨고 문무를 겸비한 분이니 부목사님을 닮은 팬클럽이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며칠 전에 꿈 지하철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복권은 안 샀지만 복권 긁어보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도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친구에게 ‘오케이’를 외쳤죠.

그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약속 장소 근처에 있는 대형서점에 미리 도착해 책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근처 서점에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방에서 올라가는 길이라 차가 조금 막혀서요. 3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여기 둘러보고 있을게요.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평소 제 성격이었으면 5분만 늦어도 자리를 떠났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느긋하더라고요.

그는 정말 딱 30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저희는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으레 밟는 수순을 따랐습니다. 밥 먹기 전 카페부터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가 알아봐 둔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통성명을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성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조용 표! 제 이름은 조용표입니다!”

순간 며칠 전 메모해 둔 꿈 내용이 머리를 차르륵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내가 괜히 가수 조용필이 나오는 꿈을 꾸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있었어요.

식사 자리로 옮겨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대방 그러니까 조용표 씨는 6남매의 막내이고 형제들은 모두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둘인데요. 누나들 모두 반려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돼서 저한테는 관심 하나 없고요. 본인들 살기 바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하하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제 꿈에 나왔던 수많은 개가 생각났거든요. 이런 예지몽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꿈 내용이 딱 떨어질까 싶었어요.

“용표 씨, 다짜고짜 웃어서 죄송해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기분 좋게 웃으시니 제가 다 좋네요.”

용표 씨는 외모에서부터 ‘나 성실’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었고 형제들의 사업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여러 사람과 부딪혀서 그런지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제 친언니들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해 준 친구와 부목사님까지 그가 자상한 면이 있어 결혼해도 저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죠. 몇 번의 데이트 이후 넌지시 용표 씨의 마음을 떠보니 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화 씨를 처음 만난 날 현화 씨가 서점에서 산 책들을 무겁게 든 채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30분이나 늦었었잖아요. 저도 현화 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09년 2월에 만나 그해 10월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꾸었던 꿈의 ‘해몽 아닌 해몽’을 완성하게 되었죠. 당시 결혼식을 방화역 근처에서 올리면서 지인분들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많이들 와주셨거든요.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늦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아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의 갱년기와 아들의 사춘기가 맞붙어 격전을 치르고 있지만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당당이님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 꿈이 현실이 되리라 믿으시나요?

사랑 사랑 사랑

## 코로나 시대의 연애

이자경 | 서울

나는 미국 유학생이었다.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며 모든 게 행복하기만 했던 어느 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상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보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정책 시행이 비교적 느린 편이었다. 그러는 사이 바이러스는 일파만파 퍼져나가 주위 친구들은 학교를 휴학하고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도 고민이 깊어졌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봤다며 걱정을 토로하셨는데 나 또한 밖으로 나가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무서운 나날들이 이어지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눈물을 뚝뚝 흘려야 했다. 내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다니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일자리를 먼저 구해 독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그즈음부터 자꾸 아는 형을 소개해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누나, 누가 바로 결혼하래? 누나 한국 온 지도 몇 달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다며.”

20대가 되어서도 어리게만 보였던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누나를 챙기려 하다니 그 마음에 감동해 얼떨결에 나간 자리였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 규제로 몇 주는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조금 멀리서 찍은 전신 샷이라 얼굴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웃을 때 이가 다 보이게 활짝 웃는다는 거였다. 몇 주 후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지하철역 앞에

서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을까요? 아, 여기서 벗으면 안 되겠죠? 어디 공원이라도 갈까요?”

“네, 공원 좋아요. 산책이라도 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야외라고 해도 사람이 밀집된 구역이면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우리는 첫 만남부터 공원으로 향해 조깅하며 ‘건강 데이트’를 즐겼다.

“웃을 때 입매가 참 예쁘세요.”

그때 공원에서 처음 본 그의 입매는 사진으로 어렵듯이 본 것보다 몇 배는 더 예뻐고 대화가 잘 통했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가며 연애를 시작했다.

“여기 카페도 다섯 시면 닫는데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서 놀래?”

“식당이랑 카페가 다 일찍 닫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좋아!”

가게들의 영업시간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집 데이트를 하게 되고 서로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로 통금이 생긴 듯 일찍 만나 일찍 집에 돌아가는 애뜻한 연애를 했더라.

그렇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울 때 만나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던 내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던 그는 지금 든든한 내 편, 남편이 되어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때 내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동생의 소개를 거절했더라면, 우리가 잘 맞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같은 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모든 우연이 모여 만난 사랑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다짐하며 짧은 글을 마무리해 본다.

사랑 사랑 사랑

# 사람이 사람으로 잊혀지나요?

애청자

내 첫사랑은 정말 지독했다. 고3 여름에 만나 같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딱 3년 만에 그와 이별했으니 말이다.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처음이라 좋았는데 그는 나에게 기어코 시린 이별의 아픔까지 알려주곤 떠났다. 한동안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도 나지 않더라. 나는 현실을 부정하듯 더 밝고 씩씩하게 지냈는데 그런 내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나 보다.

“여보세요? 은희니?”

“언니 뭐해? 집에 또 혼자 있지? 사람 만나보지 않을래? 나랑 친한 오빠인데 언니 사진 보여주니까 너무 예뻐서 만나보고 싶대. 한 번만~ 응?”

아직 그를 잊지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될까? 그분께 실례가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걱정이 앞섰지만 나를 살피주는 동생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어 나는 못 이긴 척 소개팅 장소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은희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개전골집에서 만나자 하셔서 조금 놀랐어요. 여기 괜찮으세요?”

“네, 시간이 어중간하니까요. 식사 겸 술자리까지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별 기대 없는 자리, 별 기대 없는 사람. 모든 게 다 귀찮은 마음에 큰 고민 없이 장소를 고른 거였는데 그게 티가 났나 보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주를 시켜 마셨다. 술 때문일까? 분위기 탓일까? 아니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첫사랑 때문일까? 내 말수는 줄어들고 상대방은 연거푸 술만 들이켜는데 갑자기 그가 이렇게 물었다.

“얼마 전에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아직도 많이 슬퍼요?”

“잘 모르겠어요. 충격이 커서 그런지 오히려 침착하게 잘 지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헤어졌다고 세상이 끝날 만큼 그렇게 슬프진 않네요.”

소개팅 자리에서 옛 연인 이야기를 한다니 나도 참 상대방에게 못할 짓을 하는구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택시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랑은 어떻게 헤어진 건지 다음에 또 보기로 한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 청승이 민망하기도 하고 그 입장에서도 첫사랑 타령하는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소개팅 자리를 잊고 살던 중 3일이 지났을까 대뜸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잘 지내셨죠? 저도 일이 바빠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네요.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잠수 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얼굴 보고 인제 그만 만나자고 해야겠다.’

나는 그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기 좋아하세요? 다음주에 고기 먹으러 가요.”

조개전골집에 이어 고기집이라니. 살면서 이런 소개팅 자리가 또 언제 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났다.

“제가 또 고기 굽기 장인이거든요. 이거 잘 구워졌다, 얼른 드세요.”

내 앞 접시에 놓아진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힘겹게 입을 뗐다.

“저…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아직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럼 한 번만 더 만나 봐요, 우리. 지금처럼 그냥 밥 친구 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그만 만나자고 거절하려고 나온 자리였지만 내 입장을 다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그를 쉽게 내칠 순 없었다. 나는 결국 그와 헤어지기 전 세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우리의 다음 약속 장소는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삼천포. 그가 분주하게 돛자리를 펴기 시작한다.

“돛자리도 챙겨오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이, 잠시만 있어 봐요. 으차!”

말끔하게 펼쳐진 돛자리 위에 앉아 그가 생글 웃으며 꺼내든 그것은 바로 5단 도시락.

“저 원래 아무한테나 도시락 안 싸주는데 오늘 특별히 요리한 거예요. 아침에 완전 일찍 일어나느라 혼났어요.”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반해버렸다. 도시락을 뜯느라 내리깐 눈, 자세히 보니 그 큰 눈에는 속쌍꺼풀이 있고 속눈썹은 나보다도 길어 눈에 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내 머릿속은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의 흔적보다 그 남자로 가득 채워졌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그 뻘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내게 알려준 남자. 나는 그 남자와 3년의 연애 끝에 올해로 벌써 결혼 10년 차를 맞아 두 아이를 키우며 알콩달콩 살고 있다.

주말 아침, 졸음이 가득한 얼굴로 겨우 눈을 뜨는 그를 보면 삼천포 앞에서 도시락통을 꺼내 들던 속눈썹이 참 예뻐 보였던 그날이 떠오른다.



사랑 사랑 사랑

## 석모도로 가는 선착장에서

서구호 | 대전광역시 동구

1987년 여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는 내게 선생님께서는 딱 한 마디의 조언을 건네주셨다.

‘군대부터 해결해라!’

나는 바로 군대에 자원해 그해 9월 포항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했고 무사히 훈련을 마친 후 강화도의 한 선착장에서 현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라곤 선착장 매표소에서 일하는 ‘최 양’뿐이었는데 나는 최 양과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최 양,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나 소개 좀 해줘. 외로워~”

“군인한테 누굴 소개해 줘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근무나 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989년 4월 5일 식목일. 그날도 어김없

이 근무를 서다 매표소를 지나가는데 최 양이 창문을 드르륵 열더니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이렇게 외치는 거다.

“저기 강화읍에 치과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내 친구가요 엄청 예쁘고 성실한 앤데 오늘 석모도로 나들이 간다고 여기 선착장에 들르다니까 좀 이따 일로 와요. 거기 눈썹도 좀 떼고.”

군인인 내가 무얼 가릴 처지였겠느냐만 나는 ‘최 양’의 친구 그러니까 ‘모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한다는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선착장에 다소곳이 서 있는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훑날리니 어디서 분꽃 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나는 그 날부터 미친 듯이 그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며 진심을 담은 고백을 이어갔다.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은 군인 신분에 돌아갈 일자리도 없지만 제가 사랑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놈이거든요.”

“저희 강화읍에는요, 군인이 좋다고 따라다녀서 연애한 언니들이 꽤 있는데요. 제대만 하면 연락이 다 끊기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 가벼운 만남은 싫어요.”

“거참,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애들 안 되겠네. 나중에 그 죄 다 돌려받는다니까요.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면 벌받아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약속 지키겠다!’

맹세한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그해 겨울, 그녀는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

제대 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 나갔고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취업에 성공한 나는 회사가 있는 대전으로 이사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신입사원 연수와 업무 적응, 회사 일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보다 더 힘들



있던 건 대전과 강화도를 넘나드는 장거리 연애의 고충이었다.

“구호 씨 정말 보고 싶다. 오늘도 많이 바빴지?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여.”

“자기도 치과 일 힘들었을 텐데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으려나. 보고 싶다~”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던 나날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회사에 남아 잔업을 하고 있는데 동료가 대뜸 전화기를 건네준다.

“구호 씨, 좋겠네. 전화 좀 받아 봐요.”

‘거래처에서 좋은 소식이 있나?’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가져다 대니 익숙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대전역인데 구호 씨 퇴근했어? 공중전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와~”

전화를 끊자마자 부리나케 그곳으로 달려가니 짐이 한가득 들어 있는 가방을 꼭 쥐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가 보였다.

“여기까지 혼자 온 거야? 치과는 어찌고?”

“응, 휴가 냈어. 나 생전 처음 기차 탔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 싶었다고 품에 안기는 그녀가 얼마나 안스럽고 미안하든지. 그녀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서 바빠 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겁도 없이 사무실 주소 하나만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마음먹었다. 그녀와 평생을 함께해야겠다고, 그녀가 불안할 일 없게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어야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5년의 장거리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녀는 나의 아내로서 늘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 지금도 처가에 가면 꼭 들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외포리 선착장. 그곳도 이제 많이 변했고 지금은 석모도로 가는 다리도 생겨 예전만큼의 낭만은 못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전의 우리처럼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이 있을 거로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 나 하나 믿고 친구 한 명 없는 대전까지 와준 내 사랑! 우리 남은 인생도 잘살아 봅시다!

사랑 사랑 사랑

## 라웅 화산이 이어준 사랑

이경현 | 서울 도봉구

2015년 7월 한국도 아닌 떠나면 발리의 한 공항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메일 확인하셨을까요? 현재 체크인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라웅산 화산 폭발로 모든 비행편이 연기되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산 폭발이요?”

“일단 대기해 주시면 다음 비행 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를 마치고 발리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오전 비행기라 새벽부터 짐을 챙겨 부라부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화산 폭발이라니. 다음 비행편이 언제인지도 당장 알 수 없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찌지? 도착일이 미뤄지면 일정이 다 꼬이는데. 에이, 아니야 이 참에 발리에서 폭 쉬고 좋지, 뭐.’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 싶어 저는 마음을 편히 먹고 일단 공항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무한정 기다리느니 숙소를 잡고 잠깐 눈이라도 붙이려 했죠. 다 챙겨둔 캐리어를 질질 끌어서 내로 돌아오는 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이경현 고객님 맞으십니까? 싱가포르행 비행기 직항으로 내일 오후 2시 20분 출발 예정입니다. 1시까지 공항에서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하룻밤만 기다리면 된다니 선물 같은 휴일이 생긴 셈이라 침대에 누워 폭 쉬다가 저녁 일찍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사가 예약해 둔 공항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아버지 연배로 보이는 중국인 분이 앉아계셨어요. 그분께서 앞 옆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정신없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슬쩍 둘러보니 다들 묘하게 닮으셨고 어깨를 툭툭 치며 서로 이름을 부르기에 가족끼리 다 같이 이동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해금을 전공해서 공연을 다니는 해금 연주자였거든요. 거기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으니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니하오~ 가족끼리 여행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니하오~ 네 맞아요. 열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지요. 아까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뇨. 저는 워싱턴귀린, 한국인인데요. 제가 해금 연주자라 중국어를 공부해서요.”

해금 연주자라고 하니 그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해금이요? 그럼, 공연도 다니시겠네요? 한국분이 중국어도 이리 잘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저, 중국에서 공연한 적도 있어요. 국악그룹 ‘미지’로 활동하면서 한국 티브이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티브이에 나왔다는 말에 어르신은 별떡 일어나 가족분들의 어깨를 막 흔들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한국에서 해금을 연주하는데 티브이에도 나오는 연예인이라! 이야~ 이민호 만나봤어요? 이민호가 참 잘생겼어. 나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음악 프로에 몇 번 나간 게 전부라 연예인이라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내심 기분 좋은 마음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연예인이다, 이 인연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변호라도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 대신 중국의 채팅 어플 아이디를 알려드렸고 마침내 버스는 공항에 도착해 중국인 대가족과의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해금 연주에 집중하며 본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리에서의 ‘화산 폭발 해프닝’도 까맣게 잊어가던 어느 날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중국어로 된 문자라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인상 좋은 제 또래의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니하오~ 발리 공항버스에서 만났던 대가족 청년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랑 대화 나누셨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아버지께 채팅 아이디 넘겨 달라고 했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추천받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어르신님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참에 중국어 공부 삼아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당시 유행하던 한국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를 결제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대화를 이어갔죠. 추천해 드릴 건 다 해드렸으니 대화가 금방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매일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추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이경현이고요. 올해로 서른넷이에요.>

<저는 ‘양’이라고 해요. 해금은 언제부터 연주하셨어요?>

계속되는 개인적인 질문에 슬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닌가? 하긴 버스에서 잠깐 본 게 전부인데 나를 어떻게 좋아하겠어.’

하지만 머지않아 제가 도끼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거의 2주를 꽉 채워 매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그 남자 ‘양’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8월 11일에 한국 가요. 원래도 한국이 궁금하고 좋았는데 경현 씨랑 대화할수록 거기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져서 안 되겠어요. 공항에 마중 나와 줄래요?>

대망의 8월 11일 저와 양은 인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발리 버스에서 만난 게 7월 11일이었는데 딱 한 달 만에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사실 양이 저를 보러 한국까지 와준 것 같아 그분이 한국을 여행하는 5일 동안 전담 가이드가 되어주기로 했죠. 한국어가 서툰 양을 위해 제가 내내 중국어로 말했는데 양은 제 중국어 발음을



참 좋아해 줬어요.

“경현 씨~ 중국어 발음이 참 귀여워요.”

“귀엽기는요. 경복궁 보고 싶다면서요? 저기서 버스 같이 타요.”

경복궁, 홍대, 명동... 참 부지런히도 돌아다녔는데 여행 넷째 날이 되자 양은 종일 머뭇거리더니 저녁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경현 씨 부모님이 궁금해요. 내일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경현 씨 부모님 만나러 가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그새 ‘양’의 불도저 성격에 적응해 버린 걸까요.

‘그래, 뭐 2주 짝 채워서 대화했고 나흘째 보니까 좋은 사람 같고! 내 모든 걸 알고 싶단니까 그럴 수 있지. 내일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면 못 해줄 게 뭐야.’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니 개가 누군데 우리를 보자는 거냐, 말도 안 통하는데 어찌자고 이러냐?’ 하셨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외국에서 온 청년한테 한식 소개해 준다고 생각하고 만나 보라는 제 말에 설득되고 마셨어요.

그렇게 양은 기어코 저희 부모님을 만나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러 인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가족과 식사하는 게 내심 낯설고 불편할 법도 한데 그나마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를 꺼내 인사드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이 조금 귀엽더라고요.

공항으로 들어서는 양의 뒷모습을 보며 내심 아쉽다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양이 휙 뒤돌더니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경현 씨만 괜찮다면 9월에 경현 씨를 중국으로 초대해도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러 와요. 이번에는 내가 대접할게요.”

“정말요? 그럼 꼭 문자 보내요. 초대 기다릴게요.”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양이 정말로 저를 초대할 거라는 사실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한 달 후 이번에는 9월 11일경 양은 비행기표를 끊었다며 저를 중국 우한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말 마법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2015년 9월 11일 중국에 도착해 집을 찾고 공항 로비로 이어지는 문을 나서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발리 버스에서 만났던 그 열 명의 대가족분이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경현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경현 씨가 온다고 하니가 우리 아버지랑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공항까지 따라 온대서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환대는 정말 처음 받아 봐요. 다들 너무 반가워요.”

그렇게 가족분들의 환대 속에 저희는 다 같이 양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저에게 연예인이라고 ‘이민호 실물은 어떠냐’고 물으셨던 어르신이 저를 특히 예뻐해 주셨어요.

우한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양은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마치 제가 서울을 구경시켜 준 것처럼 능숙한 현지 가이드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양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현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가 부모님 모시고 다음 달 10월에 한국으로 갈게요.”

저는 흘린 듯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돌아보면 발리에서 라웅 화산이 폭발해 제 비행기가 하루 미뤄진 것, 그래서 양의 가족들을 만난 것, 양이 저에게 연락해 한국으로 여

행을 오고, 제가 또 우한까지 간 것까지 모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2015년 10월 발리에서 만남을 포함해 무려 네 번째 만남 만에 한국에서 통역하는 분을 두고 상견례를 하고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우한과 한국을 오가며 해금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예쁜 딸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시 저희의 만남이 참 신기한 경우라 중국 금교 잡지에도 실렸는데 내년이면 결혼 10주년이 되어 가네요.

국제결혼이라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저 또한 중국으로 떠나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뒤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잠시 일을 하러 한국에 나와 지인을 만나러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 저희 부부의 만남을 추억하게 되어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한국말이 서투른 남편에게 전하고 싶어요.

“워 아이니! 워 용위엔 아이니!” 난 널 영원히 사랑하겠다고요.

여자는 모른다

# 엉덩이 때문에

애청자

저는 30대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입니다.

다들 엉덩이가 콤플렉스라고 하면 “어머~ 남자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게, 남자가 무슨 엉덩이를 얘기하냐?” 이러면서 핀잔들을 주지만, 당사자인 저는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 별명은 ‘오리궁뎅이’였습니다. 대부분 남자는 엉덩이 살이 없거나 밋밋하잖아요. 근데 저는 엉덩이가 유달리 크고 튀어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야자를 땡땡이치다가 걸려서 교실 앞으로 불러 나갔습니다. 친구들 한 명씩 나가서 칠판을 잡고 서서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몇 대씩 맞아야 했죠.

“으악~”

친구들 다 맞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 역시 양발을 벌리고 칠판을 잡고 서서 맞을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엉덩이 집어넣어! 엉덩이가 벌써 몽둥이 마중 나온 거야 뭐야?”

저는 최대한 엉덩이를 집어넣기 위해 노력하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퍽! 하고 한 대를 때리신 선생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자숙아, 엉덩이에 힘 빼라고 힘 안 빼면 엉덩이 더 아프다. 힘 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리궁뎅이라 그런 건데 선생님은 제가 일부러 엉덩이에 힘을 준다면 친구들보다 두 대를 더 때리셨습니다.

또 다른 일은 군대에 갔을 땀니다. 훈련 시절 아침에 훈련병들이 줄을 맞춰서 구보 중이었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제 자세를 보시더니 “이 훈련병, 엉덩이 왜 이렇게 뒤로 빼고 걷습니까? 엉덩이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도 내 엉덩이가 문제구나. 저는 익숙한 듯 잼싸게 최대한 엉덩이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도록 집어넣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 폼은 더 엉거주춤해졌고 그걸 본 교육관님은 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엉덩이 집어넣습니다! 허리 펴니다. 엉덩이 넣어! 허리 펴! 엉덩이 넣으라고! 허리 펴라고!” 화가 난 듯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폭주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외쳤습니다.

“제 별명이 오리궁뎅이입니다. 남들보다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다들 웃더군요.

군대에 갔다 온 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을 때도 엉덩이는 제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과 회의하다가 잠시 브레이크타임에 화장실도 갈 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회의실이 협소해서 부장님 뒤로 빠져나오는 길 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어 몸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부장님의 의자 뒤로 힘겹게 몸을 빼내던 순간 부장님은 커피를 들고 계셨고 긴장한 저는 최대한 엉덩이를 집어넣어 확보했던 공간에서 찰나의 숨을 참지 못하고 그만 탕탕한 엉덩이 탄력으로 부장님의 의자를 밀어서 커피가 거래처 부장님 얼굴에 다 튀는 대참사를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 날 회사에서 욕을 얼마나 먹었던지 아무래도 저 장수할 거 같아요.

제 누나는 저와 다르게 엉덩이가 납작하거든요. 늘 저한테 엉덩이 살 좀 떼어서 달라고 놀려요. 여자들은 엉덩이 뽕 그런 것도 넣는다는데 저는 참 좋겠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말할 땐 담담한 척 하지만 속으로 울고 싶습니다.

다이어트한다고 해도 엉덩이는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남자도 체형 때문에 콤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 여자들은 정말 모를 겁니다.

여자는 모른다

## 만사위로 사는 법

애청자

세상에는 '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며느리, 만형, 큰형이라는 중압감과 무게감으로 사회에서는 물론 가정 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며 생활합니다.

저는 딸만 셋 있는 가정의 만사위입니다. 본가에서는 막내아들인데 처가에서는 만딸의 남편이자 만사위로서의 보이지 않는 무게감 부담감은 드러나지 않게 스멀스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고부간 갈등만을 이야기하면서 옛날하고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들 하는데 '장서 갈등'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니면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장인과 사위 간에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의 그 어떤 동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장인과 사위 간에 문제 있다는 말들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백년손님이라고도 불렸던 사위에게 장모님이란 닭다리를 삶아주시는 푸근함의 상징이자 또 별거 아닌 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렵고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꼭 비교하는 거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집은 변호사 사위를 얻었다, 딸이 학원장 와이프가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솔직히 내 기분이 좀 그래. 우리 딸 혼수로 다이아 목걸이 받을 만큼 내가 키웠다 자랑한들 받은 게 없으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주말마다 우리 사위가 이렇게 내려와서 밥 사준다. 나는 그 정도로 체면 유지하면서 살아. 그냥, 그렇다고.”

사위들 목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구는 사장, 변호사, 대기업 간부 되기 싫어서 안 됩니까. 저도 잘 사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줄이 좋아서 그냥 팔자대로만 살아도 돈 걱정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만사위라는 명목으로 집안 경조사, 대소사에는 둘째 셋째 젓혀 두고 항상 저만 부르시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잘 안 하세요. 물론 제가 그런 걸로 공치사 듣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최소한 비교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아휴~ 엄마가 그냥 하는 말 같고 뭘 빼져? 남자가 그런 거 하나 이해 못 하고 쪼잔하기는~” 이러면서 막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데 아니 남자는 사람 아닙니까. 남자도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 먹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숨도 쉽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특히나 아들 없는 집의 만사위들은 아들 노릇까지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해서 토종닭도 잡아주고 온갖 산해진미의





음식들을 해줬다는 건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산 남자들이 있었구나 하고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 솔직히 일반 사위들과 달리 만사위라서 본가보다 처가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보리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결혼하면 본가 처가 부모님 모두 내 부모님이시지요. 그러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사위들 마음 특히 만사위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가끔은 칭찬도 해주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위들도 판검사, 의사, 대기업 사위들만큼이나

자랑스럽다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분들께서도 남자들 우주주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남자들 얼마나 힘들니까. 밖에서는 돈 벌면서 어떤 때는 간 쓸개까지 꺼내주고 일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 같이해야 하고 본가 챙기랴 처가 챙기랴 우리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어디 편하게 힘들다고 투정이나 부릴 수 있습니까? 생색이나 맘껏 낼 수 있나요?

또 장모님과 따님들은 왜 그렇게 트러블들이 많으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사소한 일에도 충돌이 일어나니 그때마다 중간에서 사위들은 사라지고 싶습니다. 장모님 편을 들었다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엔 아내의 후환이 두렵고 아내 편을 들었다가는 장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무서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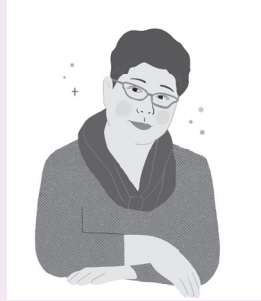
요즘은 제가 아내보다 처가에 더 자주 전화합니다. 맞벌이하는 아내들은 정말 바쁩니다. 제 아내도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밤에만 잠깐 얼굴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위인 제가 처가에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 그래~ 우리 딸내미 살아있지? 우리 집은 사위들이 전화를 더 많이 한다~” 이러면서 웃픈 농담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K사위 만 사위가 이런 사람입니다.

10월에 막내 처제가 결혼합니다. 이 역시도 만사위와 만딸인 저희는 준비할 게 많습니다. 주말이면 처가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결혼 준비에 힘을 보태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들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은 동서들 사이에서는 내가 대장이라는 겁니다. 장모님이 다른 집 사위랑 비교하고 타박하며 기죽여도 동서들 처제들은 모두 제 편입니다. 이 맛에 대한민국 만사위 노릇 하나 봅니다. 대한민국 사위분들 힘냅시다.

## 시장 구경 사람 구경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추석 전 주말, 동생들을 불러 모아 남대문 시장에 갔다. 엄마 없이 맞는 첫 추석이라 헛헛한 마음에 어린 날처럼 시장을 둘러보고 싶었다. 입성에 워낙 신경 안 쓰는 막내 옷을 마련해주고 싶었고, 시장을 잘 아는 희경을 대동해 함께 나선 길이었다.

“언니, 명절 전에 무슨 시장엘 간다는 거야? 사람에 치여 정신없을걸?”

“아냐~ 안 그럴 것 같은데? 여성시대 앞으로 오는 편지를 보면 경기가 형편없다는데? 어쩔 뜻밖에 한산할지도 몰라.”

하여튼 일산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거침없이 달렸다. 주말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문 닫힌 가게도 보이고 시장통에 사람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띈다.

지하상가를 찾아 들어가니 별천지. 그곳엔 희경의 어린 날 친구가 오래 지키는 가게가 있다. 온갖 수입품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난 파마머리가 자라 손질이 어려워 튼튼한 머리핀과 제대로 만든 옷핀이 아쉬웠다. 그 두 가지 핀 종류를 만나면 잊



지 말고 사야지!

일단 옷 가게로 가서 우리가 고르고 원하는 걸 막내가 선택하는 식으로 쇼핑을 했다. 옛날 추석 편 내복과 두터운 양말에 고리땡(코듀로이) 바지를 입었던 기억도 나는데 요샌 더위 흔적이 있어 늦여름 원피스 두 벌과 걸치기 좋은 연회색 카디건 스웨터를 샀다.

막내는 무늬 있는 걸 어색해해서 단색을 찾으니 쉽지 않았다. 골목골목 누비는 중에 우리처럼 자매 둘, 셋이 나온 나이 든 여자분들이 많았다. “우리도 자매끼리 왔는데 그쪽도 그렇네요. 얼굴 보니 막내신가 보네요”한다. 도대체 단색 옷들은 어디 있을까? 다행히 좋은 천 바지 두 벌, 기본 디자인과 어울리는 단색 블라우스 두 벌을 찾았고 내복까지 다 개비했다.

대도상가 계단 밑에는 멀치육수 국숫집이 있어 쭈그리고 앉아 맛나게 먹었다. 국숫집 주인 여자는 장사하고 처음 맞는 불경기란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아니, 경동시장엔 바글바글한다는 데… 하기야 뭐 여긴 제수용품이 없으니까요. 열무김치 내기도 고민 될 정도로 채소 값 장난 아니었잖아요? 추석이 가까워지니 외려 값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인사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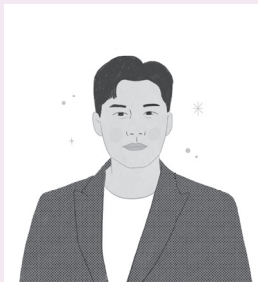
우리 양옆에도 두 쌍의 자매들이 앉았다. 큰길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어묵, 떡볶이 맛집에서 오징어, 새우튀김과 떡볶이까지 사서 막 내를 전철 정류장에 내려주었다. 집으로 오는 길은 엄청나게 막혀서 도대체 다들 어딜 가시는 길이냐고 묻고 싶었다. 별초? 성묘? 인천공항행? 파주 아울렛? 진심 궁금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 좋겠다.

(매달 10일에 <월간 여성시대>가 나오면 곧이어 다음 달 원고를 쓰니까, 3주쯤 앞선 얘기를 쓴다는 점 양해 바란다.)



## 홍시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홍시라고 하면 이맘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나훈아의 노래 ‘홍시’일 것이다. 가을에 수확한 가장 오래 숙성시킨 감.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홍시는 우리 집 반려견의 이름이다. 갈색 푸들 우리 집 막내딸 홍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공포감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2020년 봄에 홍시는 우리 집에 행복감으로 찾아왔다.

어렸을 적에도 우리 집엔 몇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너무나 귀여웠고 신기했지만 내가 뭔가를 해주어야 하는 책임감은 없었다. 그저 집에 있으니 귀여워서 이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었다. 그 외엔 엄마가 밥 주고 산책시키고 대소변도 정리하는 존재. 하지만 홍시는 달랐다. 예전의 엄마처럼 나와 아내의 결정으로 입양했고 매일 밥을 챙겨야 했고 하루에 두세 번 산책을 시켜야 한다. 거기에 목욕과 빗질, 양치와 발톱 관리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미용도 맡겨야 한다. 우리 집의 두 아들은 예전의 나처럼 가끔 쓰다듬어주고 이름 부르고 귀여워해 준다.

귀여워해 준다, 이빠해 준다에서 그쳤다면 아마 지금처럼 막내딸이라고 여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밖에서 뭔가를 잘못 주워 먹었는지

토약질을 하고 어디가 불편한지 구석에 숨어 웅크리고 있거나 밥을 잘 먹지 못할 때 늦은 밤 일지라도 우린 홍시를 안고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내달렸다. 그때마다 바라는 한 가지는 다른 말은 못 해도 어디가 아프다는 표현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벌써 네 살이 된 홍시는 사람 나이로는 서른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방에서 인사만 건네는 사춘기 두 아들과 달리 꼬리가 떨어져 나갈 듯 흔들며 내 품에 파고드는 홍시. 덕분에 집에 들어갈 맛이 난다. 물론 술 한잔 걸치고 늦은 밤 조용히 들어가고 싶어도 홍시 때문에 산통이 깨지기 일쑤다. 어느 집 사랑으로 키우는 강아지들은 다 그렇겠지만 홍시는 물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목줄을 안 한단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좋아한다. 동네 산책하러 나가면 강아지들보다 사람들을 더 반긴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부터 올 동네 택배 아저씨까지 어찌 알고는 힘차게 꼬리치며 반갑게 인사한다. 그래 그렇게 밝게만 자라다오.

할 줄 아는 거라곤 ‘앉아, 기다려, 손!’ 밖에 없지만 홍시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홍시 때문에 맘 편히 해외여행도 갈 수 없고 국내 여행도 반려견 동반 가능한 숙소만 찾아다니고 여행지에서도 국립공원은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린 홍시와 늘 함께한다.

두 아들 녀석이 다가가면 엄마 아빠와 다르게 으르렁거리는 홍시. 그래도 집에 오면 홍시부터 찾고 자리 방에 들어갈 때도 홍시에게는 꼭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네는 두 오빠들. 그렇기에 함께 산책 나가면 잘 따라오는지 뒤돌아보며 오빠들을 또 그렇게 챙긴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분명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없어선 안 될 또 하나의 우리 식구가 되어간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 IBK UP TOGETHER

아티스트 발굴에서 스포츠 지원까지

IBK기업은행은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가능성의  
제1호 팬이 되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름이 빛나는 그날을 위해

IBK기업은행의  
**BOOM  
UP**

너의 가능성  
이제, 빛날 일만 남아있어

신진작가 창작 및 전시지원  
[ IBK 아트스테이션 ]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  
[ IBK 드림윙즈 ]

사격, 여자배구, 태권도, 레슬링, 역도 등  
[ 대한민국 스포츠발전 후원 ]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 IBK UP TOGETHER

IBK기업은행이  
곁에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사업  
[ IBK 희망디자인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 장학금, 치료비 지원 ]

IBK 중소기업  
[ 공동직장어린이집 ]